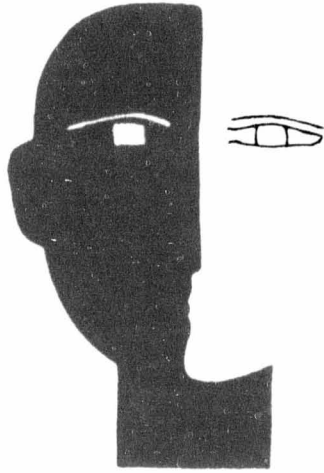


최근 북한주민 의식변화 동향



통 일 원

이 報告書는 東歐圈 崩壞, 蘇聯邦 解體 등 激變하는 國際情勢 속에서 最近 北韓住民들의 意識이 어떻게 變化되어 왔는가를 北韓의 主要 文件과 歸順者 證言 등을 통해 分析함으로써 오늘의 北韓實相에 대한 認識提高를 위하여 作成된 것입니다.

目 次

- I. 分析 目的・方法

- II. 主要 文件 및 證言을 통해 본 北韓住民 意識
變化 事例
 - 1. 文件에 나타난 事例
 - 2. 證言에 나타난 事例

- III. 最近 北韓住民 意識變化 動向 特徵

- IV. 向後 北韓의 社會變化 展望

- 【添附】 歸順者・訪北者 證言事例

I. 分析 目的・方法

- 東歐 社會主義圈의 崩壞에 이은 蘇 聯邦의 解體, 그리고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 採擇과 『思想解放』 宣言 등 激變하는 國際情勢는 該間 閉鎖體制를 固守해 온 北韓에도 적지 않은 影響을 주고 있고, 이것은 北韓內의 극심한 經濟沈滯・政治的 失政 등과 맞물려 北韓住民들에게 社會主義 體制에 대한 懷疑感과 함께 外部世界와의 比較認識의 視角을 增大시키는 契機를 갖게 하였음.
- 이러한 比較認識의 視角 增大는 必然的으로 北韓住民들의 意識變化를 隨伴하게 되고 이는 向後 北韓 社會變化의 向背에 중요한 變數로 作用할 것인 바, 北韓住民들의 意識이 어떻게 變化하여 왔는가를 分析하는 것은 北韓社會 開放化 方案 및 統一政策 立案의 基礎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本 報告書는 北韓住民들의 意識變化 흐름을 社會變化 側面에서 集中的으로 分析하되, 北韓社會의 特性上 黨・政 幹部들을 中心으로 한 上層部와 勞動者・事務員 등 一般住民들간에 狀況認識에 대한 視角의 차이가 있을 것이란 前提下에 『위로부터의 變化』와 『아래로부터의 變化』로 大別, 二元的 接近方法을 試圖하였음.

○ 또한 '89年 『平壤祝典』과 '89-90年으로 이어지는 東歐 共產圈 崩壞
 是 北韓 住民들에게 北韓의 現實에 대한 再認識과 함께 外部世界에 대
 한 關心을 觸發시키게 하는 중요한 契機가 되었을 것이란 前提下에 本
 報告書에서는 이 時期 以後를 集中的으로 分析하였음.

- 이에 따라 本 分析을 위하여 '89 『평양축전』이후 歸順者·訪北者
 40名の 證言 및 資料를 活用함과 동시에 證言의 恣意性を 排除하고
 分析의 論理性·客觀性 提高를 위하여 '91-'92년간 金正日의 3件의
 談話 및 論文, 그리고 '92年 10月中 로동신문, 中·平放의 論·社說도
 分析對象으로 하였음.

分析對象 證言 및 文件

區分	內 容
證言	○ 總 40名 - 歸順者 24名, 訪北者 8名, 其他 8名
文件	○ 金正日 談話 2件 ○ 金正日 論文 1件 ○ '92年 10月中 로동신문, 中央放送, 平壤放送 論說·社說

II. 主要 文件 및 證言을 통해 본 北韓住民 意識變化 事例

1. 文件에 나타난 事例

- 北韓에서 發表하는 談話, 言論의 論·社說은 대부분 金父子의 敎示와 方針, 그리고 黨政策을 宣傳·擁護하는 것을 主要 任務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文件들 속에서 北韓 社會變化의 主要 動因으로 作用할 수 있는 住民意識 動向을 直接的으로 把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
- 그러나 北韓은 이러한 文件들을 통해 住民들을 啓導·敎養시켜야 하는 現實的 必要性 때문에 비록 直接的인 表現은 아닐지라도 主要 契機時마다 北韓社會가 안고있는 問題點·病弊 등에 대해 그 改善을 促求하는 間接的 方式으로 示唆하고 있는 바, 이러한 文件의 行間의 意味를 통해 現在 北韓社會 底邊에 흐르고 있는 住民들의 意識變化 動向을 迂廻的으로 感知할 수 있음.
- 따라서 여기서는 '91年 5月과 '92年 1月, 10月 세차례에 걸쳐 金正日 이 發表한 談話와 論文, 그리고 '92年 10月中 로동신문 및 中·平放의 論·社說을 分析함으로써 現在 北韓住民들이 가지고 있는 意識變化 흐름의 大綱을 把握코자 하였음.

- * '91.5.5, 勞動黨 中央委 責任일군들과의 金正日 談話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 '92.1.3, 勞動黨 中央委 責任일군들과의 金正日 談話
: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 '92.10.10 勞動黨 創建 47돌 즈음 發表 金正日 論文
: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 그 結果, 現在 北韓 指導層은 社會 全般에 걸친 住民 意識變化 胎動에 심각한 憂慮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憂慮는 各 文件에 相互 一貫性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바, 그 樣相은 ①體制批判 勢力의 扶植에 대한 憂慮, ②勞動黨의 唯一的 指導統制 強調, ③多黨制·議會制 弊害 力說, ④個人主義·부르조아 自由化바람 浸濕 警戒, ⑤特權意識 및 官僚主義 批判 등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음.

가. 反體制 및 政權批判勢力 扶植 憂慮

- 北韓은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의 反社會主義 策動을 警戒해야 한다고 強調하면서, 특히 不純分子들의 外部勢力과의 連繫 可能性을 憂慮하고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지난 '89年 東歐 共產圈 崩壞 以後 거의 日常化되어 있으며, 最近에는 그 強度와 頻度數에 있어서 程度를 더해가고 있음.

- 이와같이 北韓이 反社會主義 策動을 심각히 舉論하고 나선 것은 最近 蘇·東歐 共產圈 沒落, 韓·中修交 등으로 이어지는 國際情勢의 急變과 國內 經濟事情의 惡化로 인해 北韓社會 内部에 不滿勢力이 胎動, 점차 反體制 및 政權批判 勢力으로 扶植·發展되는데 따른 憂慮의 表明으로 보임.

〈關聯 文件〉

< 191.5.5 勞動黨 中央委 責任일군들과의 金正日談話,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 책동을 악랄하게 벌이면서 혁명적 원칙을 지키는 나라들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함.

■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반대하여 파괴하는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계급적 원수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응당한 것임.

< 192.1.3 勞動黨 中央委 責任일군들과의 金正日談話, 「사회주의 혁명적 투쟁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

■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계속되고 내부에 그와 연결된 불순분자들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정권은 언제나 혁명의 무기로써 반혁명적, 반사회주의적 요소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과 내부의 반동들이 혁명과 건설을 방해하며 사회주의를 파괴하려고 책동하는 것을 제때에 짓부셔 버려야 함.

< 192.10.10. 『勞動黨 創建』의 形 容 詞 發 表 金 正 日 論 文 『 黨 領 導 體 』 >

『 黨 領 導 體 』의 形 容 詞 發 表 金 正 日 論 文 『 黨 領 導 體 』 >

■ 당안에서 나타나는 배신행위는 밖으로부터의 파괴책동보다 당의 존망에 더 큰 위험을 조성하지만 배신행위를 막아내는가, 막아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것에 달려 있음.

■ 역사적 경험은 혁명의 대가 바뀌고 내외정세가 복잡할때 야심가, 변절가들이 나타나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책동한다는 것을 보여줌. ... 당안에 반혁명적 사상조류가 허용되면 그에 기초하여 반당집단이 형성되고 당을 파괴하게 됨.

< 192.10.12. 『 勞 動 黨 創 建 』의 形 容 詞 發 表 金 正 日 論 文 『 黨 領 導 體 』 >

『 黨 領 導 體 』의 形 容 詞 發 表 金 正 日 論 文 『 黨 領 導 體 』 >

■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음.

나. 勞動黨 政 權 的 唯 一 的 指 導 統 制 強 調

- 北韓은 勞動黨의 唯 一 的 指 導 統 制 를 強 調 하 며 서 만 일 『 勞 動 階 級 的 黨 』 즉 勞 動 黨 的 地 位 와 役 割 이 弱 化 된 다 면 反 革 命 分 子 들 이 政 權 을 掌 握, 社 會 主 義 를 拋 棄 하 게 될 것 이 라 고 하 는 등 反 革 命 勢 力 的 胎 動 에 대 해 지 극 히 警 戒 하 는 態 度 를 보 이 고 있 음.

- 또한 經濟에 대한 國家의 統一的 指導統制의 正當性을 누차 強調하고 있는데, 이는 最近 經濟事情 惡化와 關聯하여 北韓의 經濟政策 立案者 및 테크너크라트 등 中間엘리트 集團内部에서 中央執權的 計劃經濟에 대한 懷疑 및 批判과 함께 中國式 社會主義市場經濟 모델의 導入 不可避性이 内部에서 舉論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注目됨.

〈關聯 文件〉

< [redacted] 伊中央委 責任인군들과의 金正日談話: 『인민대중 중심의 社會주의는 實증불가능하다』 >

- 노동계급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영도권을 노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임.
-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거세한다면 반혁명분자들이 민심을 오도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음.

< [redacted] 伊中央委 責任인군들과의 金正日談話: 『사회주의 經濟체제의 發展은 國家의 指導를 必要로 한다』 >

-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게 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개별적 기업소들의 독자성과 경제적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금하는데로 나간다면 결국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파괴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되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대치시키거나 경제의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부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음.

< '92. 10. 10. 勞動黨 創建 47돌 즈음 發表 金正日 論文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

■경험은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으로 건설하지 못할 때 혁명의 시련의 시기에 당이 공산주의자들의 소수 정치집단의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당의 영도를 떠나서 근로단체의 독자성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근로단체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혁명세력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됨.

< '92. 10. 15. 平壤放送 論說 『사회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

『사회주의 정권의 필수적 임무』 >

■사회주의 정권,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 반사회주의 책동을 제때에 짓부시고 사회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되는 것임.

다. 多黨制·議會制 弊害 力說

- 多黨制 및 議會制를 大獨占資本家에 의해 操縱을 받는 부르조아政治라고 酷評하면서, 이를 許容할 경우 『勞動階級の 黨』은 反動들에 의해 政權을 상실할 것이라고 警告하는 등 自由民主主義의 基本인 多黨制·議會制에 대해 극히 否定的인 反應과 함께 不安感을 露呈시키고 있음.
- 北韓이 비록 友黨이기는 하지만 『朝鮮社會民主黨』, 『天道敎育友黨』 그리고 심지어는 無所屬 最高人民會議 代議員까지 對外 宣傳用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마당에 굳이 多黨制의 弊害를 직접적으로 力說하고 있는 것은 既存의 友黨 概念이 아닌 政權挑戰勢力이 内部에 胎動하고 있거나, 아니면 開放에 必然的으로 隨伴될 수 밖에 없는 自由民主的 議會主義에 대한 論議 自體를 事前에 封鎖하기 위한 措置로 풀이됨.

※ 北韓의 朝鮮社會民主黨, 天道敎育友黨 代議員들은 실제로는 朝鮮 勞動黨員인데, 이들은 對南·對外用 宣傳次元에서 身分을 위장하고 있음.

※ ~~朝鮮最高人民會議政黨別代議員數(第9期)~~

: 조선로동당 601명(87.5%), 조선사회민주당 51명(7.4%), 천도교 청우당 22명(3.2%), 무소속 13명(1.9%)

< 191. 5. 5 勞動黨 中央委 責任 일군들과의 金正日 談話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조아 의회제와 부르조아 다당제를 그 무슨 민주주의로 표방하고 있지만 부르조아 의회제와 부르조아 다당제의 배후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 자본가들임.

< 192. 1. 3 勞動黨 中央委 責任 일군들과의 金正日 談話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당의 총로선」 >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화와 정치에서의 다당제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인민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됨.

■역사적 경험은 사상을 자유화하여 반사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이 유포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허용하여 반사회주의 정당들의 활동이 보장되면 계급적 원수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 책동을 감행하여 노동계급의 당을 정권의 자리에서 내쫓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 1972.10.10. 勞動總動員委員會 報告 金正日 論文 >

『社會主義建設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

■ 사회주의 배신자들과 반동들이 민주주의와 공개성의 간판 밑에 사회주의 집권당 안에서 나타난 결함을 사회여론을 오도하는데 이용하였지만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었다면 적지않은 사람들이 반혁명분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당과 정부를 반대해 나서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임.

< 1972.10.10. 勞動總動員委員會 報告 金正日 論文 >

『社會主義建設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

■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를 표방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그것을 받아들여도록 압력을 가하며 사회주의 위업을 와해 말살하려고 온갖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 있음.

라. 個人主義 · 부르조아 自由化바람 浸濕警戒

- 帝國主義者들과 그 앞잡이들이 부르조아 思想과 文化를 浸透시켜 資本主義에 대한 幻想을 조장함으로써 社會主義 瓦解를 策動하고 있다고 強調하면서 個人主義 · 自由主義思想 浸濕에 대해 민감한 反應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부르조아 生活樣式, 『날라리 바람』 傳播 등에 대해 青年들의 警覺心을 促求하고 있는데, 이는 '80年代 初盤부터 北韓社會에서 外貨 및 달러貨의 通用으로 인한 物質選好思想 澎湃, '89-90년의 동구 및 蘇聯 留學生 召還에 따른 北韓內 外部思潮 流入, 그리고 外國觀光客 誘致, 海外同胞 訪問, 平壤祝典 開催 등 一連의 部分的 開放으로 인해 北韓內에 資本主義 文化가 指導層의 『우려할만한 수준』으로까지 擴散되고 있음을 反證하고 있음.

《關聯 文件》

< 91. 8. 5 勞動黨 中央委員會 責任일꾼들과의 金正日 談話, 『인민』 >

대중 중심의 우리식 社會주의는 필승불패이다 >

-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사람들 사이에 대립관계를 가져옴. 개인주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 요구에 배치됨.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이 들어올 수 있음.

< 92. 1. 3 勞動黨 中央委員會 責任일꾼들과의 金正日 談話, 『사회』 >

주의 정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總路線 >

- 사회주의 사회에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어 사회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조장하게 됨.

< [redacted] >

[redacted] >

■적지않은 당들은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의 침습으로 말미암아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가 약화되었으며 이틈을 타서 혁명의 배신자들이 반혁명적 노선을 공공연히 내리 먹이게 되었음.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의 침습을 막아내고 사람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됨.

< [redacted] >

[redacted] >

■제국주의자들은 썩어빠진 부르조아 사상과 문화를 사회주의 나라들에 끊임없이 침투시켜 사람들의 혁명성을 마비시키고 그들 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음.

< [redacted] 청년들속에서 끊임없이 >

[redacted] >

[redacted] >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놈들은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청년들속에 자본주의 사상과 부르조아 생활양식, 날라리 바람을 불어넣어 그들을 부패 타락시키고 반혁명의 길로 굴러 떨어지게 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음.

마. 特權意識 및 官僚主義 批判

- 金正日是 幹部들에게 特典·特惠意識의 排斥과 清廉潔白한 生活을 要求하면서 이들의 勢道와 官僚主義 意識에 대해 강한 批判을 가하고 있는데, 특히 새 世代들의 不正腐敗 現象에 대해 警覺心을 促求하고 있음.
- 이것은 소위 『人民大衆中心』의 無階級社會를 표방하고 있는 北韓社會에 官僚들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階級』이 存在한다는 것을 暗示함과 동시에 이들의 不正腐敗와 勢道로 인해 住民들의 不滿이 增幅되고 있음을 間接적으로 反證하고 있음.

《關聯 文件》

< '91. 5. 5, 勞動黨 中央委 責任일군들과의 金正日 談話,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

■세도와 관료주의는 직권을 악용하여 권세를 부리며,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임.

■일군들은 틀을 차리거나 행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여야 함. 일군들은 사리를 추구하거나 특전, 특혜를 바라지 말아야 하며, 청렴결백하게 생활하여야 함.

< 1927.1.3. 勞動黨 中央委 責任일꾼들과의 金正日 談話,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

■혁명적 군중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일꾼들이 인민대중을 무시하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쳐다보는 외세의존 사상과 난관앞에 굴복하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됨.

■남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적 통치방법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주의적 관리방식을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는 것보다 못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사업임.

< 1927.10.10. 勞動黨 創建일꾼들 宗 會 發表 金正日 論文,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 속에서 계급적 각성이 무디어지고 생활상 요구가 더 높아진 반면에 혁명적 세력이 부족한 새 세대들이 간부대열에 들어오면서 관료주의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첫시기에는 얼마 없었던 부정부패 현상까지 적지않게 나타나게 되었음.

2. 證言에 나타난 事例

- 앞에서 金正日의 主要 談話·論文, 그리고 로동신문과 中·平放의 論·社說을 檢討·分析해 본 結果, 北韓 當局은 現在 社會底邊에 흐르고 있는 體制逸脫的 意識變化 樣相에 대해 심각한 憂慮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文件에 反映出고 있는 北韓 當局의 憂慮 및 住民 意識變化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把握하기 위해 歸順者 및 訪北者 證言을 토대로 事例別로 鳥瞰하되, 國際的 行事인 '89年의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 開催, 그리고 東歐 共產圈 崩壞라는 歷史的인 大事件이 北韓 住民들에게 적지 않은 影響을 주었을 것이란 前提下에 이 期間 以後를 集中的으로 分析하였으며 必要에 따라서는 時系列的 觀點에서 그 以前의 狀況과도 比較·分析코자 하였음.
- 한편 北韓社會의 特性上 外部情報의 知得程度, 既得權層과 疏外階層間의 立場差異 등에 따라 現狀況에 대한 認識의 觀點이 一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前提下에 北韓住民들의 意識變化를 黨·政 幹部들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變化』와 勞動者·事務員 등 一般住民들의 『아래로부터의 變化』로 大別, 二元的 接近方法을 통한 分析을 試圖하였음.

- 또한 지금은 비록 中國을 除外한 舊 蘇聯 및 東歐의 北韓 留學生들이 대부분 撤回한 狀態지만 閉鎖體制下에서 外部世界를 경험한 少數그룹 중의 하나이고, 앞으로 北韓社會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 階層이란 점에서 『留學生들의 認識變化』 흐름도 다루었음.

가. 위로부터의 變化

(1) 體制 및 政權批判

- '78년 12월 中共黨 第11期 3中全會를 통한 鄧小平의 登場, '85년 3월 고르바초프 執權으로 시작된 中·蘇의 改革·開放政策은 北韓에도 심대한 影響을 미쳐 '80年代 들어 合營法 制定, 海外同胞 訪北 招請, '90년대에 美·日과의 修交 努力 등 비록 미미하지만 開放의 試圖라는 結果를 가져왔음.
- 이러한 開放化의 過程에서 北韓의 黨·政 幹部 등 指導層은 北韓社會의 特性上 一般住民들에 비해 相對적으로 보다 많은 外部情報를 접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되었고, 그 結果 外部世界와 北韓의 現 狀況에 대한 比較 認識을 갖기 시작하였음.

- 특히 '80年代 初盤부터 加速化되기 시작한 北韓의 經濟難은 指導層에게 經濟政策에 대한 潛在的 不滿을 加重시킨데 이어, '89-'90년의 東歐 共產圈 崩壞는 北韓 指導層에게 엄청난 衝擊을 주었는데, 이것은 社會主義 體制에 대한 自信心 상실과 함께 懷疑感을 가져다 주었음.
- 證言에 의하면 現在 大部分의 北韓 指導層은 北韓의 經濟的 落後, 지나친 社會統制, 主體思想의 盲點 등에 대해 認知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體制 및 政權에 대한 冷笑나 挫折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經濟體制 改革 建議 및 『記念碑的 建設事業』에 대한 批判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證言 事例 〉

- 주소 북한대사관 참사관 등, 체제모순 및 실정 비난
('90年 歸順者)
- 김책공대학장 · 인민경제대학 교수 등, 시장경제체제 도입
건의후 좌천 및 처벌 ('90年/'91年 歸順者)
- 당 간부 · 김책공대 교수, 주체사상탑 · 남포감문 등 기념비적
건설사업 비판 ('90年 歸順者)

(2) 反 金父子 動向

- '40 -50年代에는 權力暗鬪 과정에서 金日成 1人 獨裁體制에 대한 批判과 反撥이 심했으나 '60年代에 와서 金日成이 權力鬪爭에 勝利함으로써 1人支配體制가 공고하게 確立되고, 특히 '70年代부터는 金正日 後繼體制 推進作業이 순조롭게 進行되면서 대체적으로 이를 受容하는 雰圍氣였음.
- 그러나 '80年代 들어 北韓의 經濟가 惡化一路를 치닫고, 더우기 이러한 經濟難은 金正日이 國家政策에 관여하기 시작한 '70年代 中盤부터 시작되었다는 雰圍氣가 擴散, 反 金正日 氣流가 造成되었음.
- 證言을 綜合해 보면 最近 北韓 指導層의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評價는 서로 相反되는 見解를 가지고 있는데,
 - 金日成에 대해서는 抗日 빨치산 經歷, 北韓政權 創建 業績, 初期의 經濟再建에 대한 認定과 親和力 등으로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形成되어 忠誠心이 대단한 것으로 보이나,
 - 金正일에 대해서는 一部 核心側近들을 除外하고는 그의 經濟政策 失敗와 變態的 行實·非人間的 態度 등 指導者로서의 資質 缺如, 그리고 勢力다툼 등으로 인해 内部 不滿 및 軋轢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東歐 共產圈 崩壞 以後 内部的으로 더욱 深化된 것으로 보임.

〈 證言 事例 〉

- 국가보위부장 김병하, 김정일과 세력다툼으로 피검 ('90年 歸順者)
- 박성철 아들(사단장), 김정일과 정치적 알력 ('90年 歸順者)
- 이근모, 「주식펀드제」 비판으로 해임 ('90年 歸順者)
- 외교부 청사내에 김정일 비방띠라 살포 ('91年 歸順者)

(3) 體制 危機意識

- 北韓은 政權樹立 初期, 中·蘇의 經濟援助에 힘입어 韓國보다 빠른 經濟 成長을 이룩, 社會主義 體制에 대한 自信感을 가지고 對南關係에서도 積極的인 立場을 취하였음.
-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서면서 凶作, 外債累增 그리고 軍事費 過重 등으로 점차 經濟가 疲弊해지고 社會主義 計劃經濟에 의한 各種 病弊가 露呈되면서 급기야 '74년을 分岐點으로 1인당 GNP에 있어서도 韓國에 뒤지기 시작하자 北韓 指導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음.

※ 南北韓 1인당 GNP

1973년 : 韓國 \$396, 北韓 \$418

1974년 : 韓國 \$542, 北韓 \$461

- 특히 '70年代 中盤以後 加速화된 北韓의 經濟難은 '80年代 末부터 시작된 東歐 共產圈 崩壞, 西獨에 의한 東獨 吸收統一, 蘇聯邦 解體 등 社會主義 諸國의 급속한 沒落과 함께 北韓 指導層에게 社會主義 體制에 대한 심한 懷疑感과 敗北感을 안겨주는 결정적 要因으로 作用하였음.
- 證言에 의하면 北韓의 指導層은 東歐의 社會主義 體制 沒落과 蘇聯邦 瓦解, 中國의 改革·開放 등 急變하는 國際秩序 再編과 內部的 經濟的 窮乏 등으로 몹시 당황하고 있으며 自信心을 상실, 北韓體制에 대해 스스로 問題點을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現象은 海外 留學生·派遣勤務者들의 召還, 北送 在日僑胞들에 대한 監視·統制 強化, 成分不良者들의 地方으로의 強制移住 등 自己閉鎖的인 方法으로 顯示되고 있고, 또한 各種 宣傳媒體를 動員, 『우리식대로 살자』 슬로건을 표방, 住民 思想弛緩 防止에도 注力하고 있음.

< 證言 事例 >

- 고위관리 - 동구변혁에 대해 낙담, 사회주의체제에 자신감 상실
('91年 訪北者 / '91年 歸順者)
- 북한영화 - 혁명정신 상실, 체제붕괴 위험성 경고
('91年 訪北者)

■ 국가보위부, 『반간첩전람관』 운영·귀순방지 등 교육
('90年 歸順者)

■ 북송교포 대상 『귀국자 동향카드』 작성, 감시·통제 강화
('91年 歸順者)

■ 성분불량자 색출, 북부지방 강제이주 ('92年 歸順者)

(4) 反體制 組織 徵候

- 北韓은 '50-60年代 金日成 1人 支配體制 確立過程을 거치면서 延安派, 國內派 등 모든 政敵에 대한 肅清을 完了, 金日成 政權에 組織的으로 對抗할만한 勢力形成의 素地를 除去하였음.
- 특히 이러한 權力鬭爭 過程을 거치면서 政治 查察機關인 國家保衛部, 社會安全部는 社會全般에 걸쳐 극심한 監視와 統制를 가함으로써 恐怖 政治를 恣行, 北韓社會內에서 反體制 勢力이 胎動한다는 것 自體가 거의 不可能한 狀態에 이르렀음.
- 그러나 共產主義 國家에서 史上 類例가 없는 父子權力世襲體制, 그리고 最近들어 더욱 加重되어 가고 있는 經濟難 등으로 인해 經濟官僚·軍部·學界 등의 中間 엘리트 階層을 중심으로 不滿輿論이 形成되고 있고, 이들의 集團勢力化 可能性도 비록 미미한 것이기는 하나 胎動되고 있는 것으로 證言하고 있음.

- 즉 이들 不滿勢力들은 軍 및 黨幹部를 中心으로 인텔리·學生組織과 連繫되어 小그룹을 形成하여 北韓體制에 대한 問題點을 討論, 認識을 共有하는 段階로까지 發展되고 있는 바, 向後 이들의 向背는 北韓의 潛在的인 體制威脅 要因으로 作用할 것임.

〈 證言 事例 〉

- '82년, 국가정치보위부장 중심 반정부 쿠데타계획 발각·숙청
('90年 歸順者)
- '87년, 당간부-학생 연계된 반정부조직 탄로·처형
('90年 歸順者)
- '88년 6월, 당·정 간부-유학생 연계된 반체제조직 적발·처형
('90年 歸順者)
- 북송교포 출신 대학교원, 반체제 모임 조직이유 체포·행방불명
('91年 歸順者)

(5) 政策變化 徵候

- 北韓은 '72년 南北對話 以後부터 秋夕을 기해 인근 祖上墓所에 省墓를 許容하고 있으며, '88년 以後부터는 秋夕을 休息日로 指定한데 이어, '89년부터는 舊正과 端午節까지 休息日로 認定하는 등 民族固有 名節에 關心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80年代 들어서면서 『사랑』을 주제로 한 映畫 製作·上映도 許容하는 한편, '84년 5월 金日成의 蘇聯·東歐 巡訪以後 金日成 自身이 洋服·넥타이를 着用한 것을 契機로 人民服 대신에 색상·무늬 등에서 多樣화된 옷차림도 許容되었음. 특히 '91년부터 日本映畫 『雪女』, 『孫悟空』 등의 放映을 許容, 對日修交會談과 關聯하여 和解제스추어를 취함으로써 政策變化의 한 斷面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私有財産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히 制限해 오던 北韓이 '90.9.5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을 통해 政權樹立 以後 最初로 『民法』을 制定, 家庭用品·文化用品·乘用車 등의 個人所有를 明文化한 것도 중요한 政策變化 信號의 하나로 보임.

【北韓民法 第59條】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 證言을 綜合해 보면 '80年代 中盤 北韓當局의 許容下에 신상옥·최은희의 『신필름』에서 春香傳을 주제로 만든 『사랑 사랑 내사랑』은 北韓 全域에서 空前의 大히트를 記錄한 바 있다고 하며, 金日成 自身도 祭禮 및 省墓를 하고 있고, 또한 最近에는 個人住宅의 建設도 許容하고 있는 등 근래들어 여러 側面에서 政策變化 조짐이 感知되고 있음.

< 證言 事例 >

- 북한당국의 자재지원하에 주택건설, 프리미엄 붙여 교환 가능 ('90年 訪北者)
- 김일성도 명절을 기해 조상에 제사 및 성묘 ('91年 訪中者)
- '91년부터 일본 및 홍콩영화 방영 허용 ('91年 歸順者)

(6) 自由·開放風潮 蔓延

- 北韓 當局이 制限的이나마 開放의 機微를 보이기 시작한 '80年代 中盤 이후 北韓 指導層 사이에는 外部世界에 대한 好奇心과 함께 頹廢風潮가 퍼지고 不條理도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最近들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證言에 의하면 大部分의 北韓 幹部들은 西方製品을 選好, 양담배를 身分 誇示用으로 愛用하는가 하면, 西方 資本主義 製品을 取得하여 使用하거나 南韓歌謠를 愛唱한다고 함.
- 특히 最近에는 平壤에서 觀光客을 상대로 한 賣春婦를 雇傭하는가 하면 煽情的인 場面の 公演을 許容하고 一部 指導層에서는 頹廢쇼를 強要하는 등 資本主義 社會의 副産物인 頹廢文化를 享樂하는 傾向도 露呈되고 있음.

- 또한 北韓의 中央黨 幹部들은 賂物로 子女들을 不正入學시키는가 하면, 美貌의 처녀를 別莊에 常駐토록하여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一部 特權 層의 不條理가 극심, 體制逸脫的 紀綱解弛現象도 보이고 있음.

〈 證言 事例 〉

- 모든 당간부, 양담배 이용 · 남한가요 애창 ('90年 訪北者)
- 동남아지역 매춘부 고용, 매춘행위 알선 ('90年 歸順者)
- 북한 왕재산예술단, 소련 TV에서 반나체 공연 ('90年 歸順者)
- 평양외국어학원장, 뇌물수수 · 부정입학 혐의로 해임 ('90年 歸順者)
- 20세전후 처녀선발, 당 정치국원 · 부장급 이상 간부대상 술시중 ('90年 歸順者)
- 외국주재 상사원 부패 만연 ('91年 歸順者)

(7) 對南認識

- 北韓의 高級幹部들은 外部로부터의 情報入手 채널이 多樣, 南韓의 實相에 대해 比較的 소상히 알고 있으나, 下級幹部들은 制限된 情報만을 접해 部分的인 認知程度에 머무르고 있음.

- 그러나 '80年代 中盤 以後 部分的인 開放을 통해 外部情報가 流入되고, 특히 '88 서울올림픽을 契機로 中國僑胞, 시베리아 伐木工, 蘇·東歐 留學生 등에 의해 韓國의 實相이 많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幹部들은 韓國의 經濟發展相, 南北의 現격한 生活隔差 등을 認定하고 있는 바, 過去 一方的이고 否定一邊倒의 對南認識은 많이 褪色되고 있음.

— < 證言 事例 > —

- 노동당 과학교육부 과장, 남한의 경제 발전상 시인('90年 歸順者)
- 북한군 장교 및 지도원, 남한의 발전상 시인·동경('91年 其他)
- 북한 지도층, 남한 TV프로 및 청문회 소식 정통 ('91年 訪北者)

나. 아래로부터의 變化

(1) 體制 및 政權批判

- 北韓의 一般住民들은 黨·政 幹部들에 비해 外部로부터의 情報가 制度的으로 遮斷되어 있기 때문에 現在 北韓이 처해있는 國際的 孤立, 社會主義 體制의 問題點, 南北韓間의 生活隔差 등에 대해 크게 認識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80년대 後半들어 外國觀光客 誘致, 海外同胞들의 訪北招請, 그리고 蘇聯·東歐 留學生 召還 등으로 外部世界가 조금씩 北韓社會 內에 알려지면서 北韓의 一般住民들도 外部世界와 北韓의 現實에 대한 比較認識을 갖게 됨으로써 體制에 대한 懷疑感을 갖기 시작하였음.
- 證言을 綜合해 보면 最近 制限的이나마 訪北僑胞·召還留學生 등을 통해 外部情報가 部分的으로 流入, 學生·敎授 등 인텔리 階層을 중심으로 北韓體制에 대한 批判意識이 擡頭됨에 따라 經濟政策 失政에 대한 投書, 反體制油印物 配布 등을 통해 體制不滿 및 批判行動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시베리아 伐木 經驗이 있는 勞動者, 召還된 留學生, 海外駐在 商社, 外交部 職員 등은 外國生活를 통해 北韓體制의 閉鎖性, 落後性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體制 및 金父子 政權에 대해 가장 批判的인 視角을 가지고 있음.

〈 證言 事例 〉

- 김일성종합대학생, 경제개혁건의 투서후 처형 ('91年 歸順者)
- 김일성종합대학생, 반체제유인물 제작살포후 피검·자살 ('90年 歸順者)
-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소득격차비난 삐라 부착후 피검 ('90年 歸順者)
- 선거벽보 훼손, 반정부구호 낙서 ('89年 歸順者)
- 고위간부들, 노동당의 경제정책 불만 ('91年 歸順者)

(2) 反 金父子 動向

- 一般住民들의 金日成에 대한 評價는 高位幹部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盲目的일 정도로 絶對的이고 神格化되어 있음.
- 이것은 北韓政權 樹立以後 繼續된 注入式 思想教育에도 原因이 있겠지만 金日成의 抗日 빨치산 經歷, 北韓政權 創出과 初期의 經濟發展 등에 대해 北韓當局의 宣傳대로 住民들이 믿고 肯定的인 評價를 하고 있다는데 起因함.
- 그러나 '80年代 들어 거듭되는 經濟事情 惡化, 지나친 偶像崇拜, 南北 對話를 통한 韓國의 經濟發展相 認知 등으로 인해 金日成에 대한 神格化된 이미지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으로 把握됨.
- 한편 金正日에 대해서는 經濟政策 失敗, 指導者 資質 등에 대한 不滿 및 批判輿論이 北韓住民들 사이에 상당히 비등해 있는데, 最近에는 住民들사이에 그의 享樂的이고 頹廢的인 私生活에 대해 公開的으로 批判하는 경우도 있다고 證言하고 있음.

< 證言 事例 >

- 김정일의 경제정책과 통치능력에 대한 회의론 대두('91年 訪中者)
- 김일성종합대학생, 김정일의 경제정책 실패 비판 투서후 피검 ('90年 歸順者)

- 체코 소환유학생, 『우상숭배 반대』 피켓시위 피검('90年 歸順者)
- 북한주민들, 김정일의 사생활에 대해 공개 비난 ('91年 歸順者)

(3) 反體制組織 徵候

- 一般住民들의 反體制 움직임 역시 上層부와 마찬가지로 經濟沈滯 및 金正日에 대한 不滿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비교적 自由로운 生活을 體驗하고 召還된 蘇聯·東歐 留學生을 중심으로 波及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平北 新義州는 中國과 隣接한 地理的 條件으로 改革·開放의 바람을 쉽게 感知할 수 있고, 傳統的인 基督教勢 및 抵抗意識 尚存 등으로 體制不滿이 高潮, 契機가 주어질 경우 人民蜂起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보임.
- 證言에 의하면 召還된 東歐·蘇聯 留學生 중심의 地下組織이 摘發되는 가 하면 咸興·新義州 등지에서 食糧事情 惡化에서 비롯된 學生데모가 發生하는 등 體制不滿에 따른 集團行動이 可視化되고 있어 注目됨.

< 證言 事例 >

- 평북 신의주, 기독교중심 비밀지하조직망 구축·폭동 가능성 상존 ('90年 訪北者)
- '90년 - 소련·동구 소환유학생 중심 전국적 지하조직 적발 ('91年 訪中者)
- '85년 - 김일성종합대·동구유학생 연계 반정부그룹 조직 ('90年 歸順者)
- '88년 - 『남조선방송 청취 그루빠』 적발, 정치범 수용소 수용 ('91年 歸順者)
- '91. 6 - 함흥·신의주 학생데모 발생 ('92年 訪北者)

(4) 意識變化 徵候

- '80年代 初盤까지만 하더라도 北韓住民들은 勞動黨 入黨이 出世의 尺度, 身分의 象徵이었으나 '80年代 中盤이후부터는 入黨自體보다는 海外勤務가 可能하거나 物品 및 달러 取得이 容易한 職業이 人氣職種으로 浮上하고 있음.
- 한편 過去에는 北韓當局의 反宗教政策으로 인해 宗教自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었으나, 最近에는 訪北 宗教人들을 통해 宗教에 대한 認識이 서서히 變化, 비록 北韓社會 全般에 걸친 現象은 아닐지라도 過去처럼 盲目的으로 否定的인 것만은 아닌 것 같음.

- 또한 從來 『社會主義의 敵』으로 看做되던 運命哲學, 巫俗信仰 등도 當局의 團束緩和와 中國 및 東歐留學生들의 書籍搬入 등을 통해 關心이 점차 高潮되고 있는데, 最近에는 金正日이 『미신행위를 근절할데 대하여』라는 指示를 내릴 정도로 平壤 등지에서 占을 보는 行爲가 성행하고 있다고 歸順者들은 전하고 있음.

〈 證言 事例 〉

- 인기있는 결혼상대자는 공무원 무역부·외교부 직원 등 외국여행이나 외제물품 취득가능직종 종사자 ('90年 歸順者)
- “종교가 미신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인식 확산 ('89年 歸順者)
- 중국·동구유학생들, 운명철학 서적 반입 유포('90年 歸順者)
- 평양시내, 점보는 행위 성행 ('89年/'91年 歸順者)

(5) 自由·開放 風潮

- '80年代 初盤까지만 해도 北韓은 外部世界와 철저히 遮斷되어 있었기 때문에 西方文化가 北韓 社會內에 流入될 여지가 없었음.
- 그러나 '80年代 中盤以後 西方文物이 部分的으로 流入되기 시작하면서 北韓 젊은이들 사이에는 『사랑』을 主題로 한 노래·映畫가 유행하는 가하면 팝그룹도 登場·活動하고 있으며, 靑春男女의 데이트 모습도 目擊되는 등 경직된 社會雰圍氣가 점차 緩和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傾向은 '89년 『平壤祝典』을 契機로 各國의 젊은이들이 펼쳐보인 自由奔放한 行動樣態에 적지않게 影響을 받았으리라 보여짐.
- 한편 西方製品 및 달러를 지나치게 選好, 처녀들의 경우 암암리에 淪落 行爲를 하는가 하면 暗去來도 성행하는 등 自由·開放風潮의 否定的 側面도 露呈되고 있음.

〈 證言 事例 〉

- 사랑주제 노래 『휘파람』·영화 『사랑 사랑 내사랑』 인기, 『보천보전자악단』 팝그룹 등장 ('90年, 訪北者)
- 모란봉·대동강 등에서 남녀데이트 일반화 ('89年, 訪北者)
- 김정일, 일반주민들 『외화상점』 출입금지 지시 ('89年, 歸順者)
- 나체사진 촬영, 일본인에게 판매 ('89年, 歸順者)
- 외교관·유학생 대상 윤락행위 여성 증가 ('91年, 歸順者)

(6) 社會逸脫 兆朕

- 經濟가 疲弊해지고 社會主義體制에 대한 危機意識이 高潮되면서 最近 北韓에는 여러 側面에서 社會逸脫 兆朕이 보이고 있음.

- 證言에 의하면 最近 北韓全域에서는 극심한 生活苦로 인해 竊盜가 横行하고 있으며, 一部 特權層과의 生活隔差는 이들에 대한 憎惡心·反撥心으로 連結되어 各種 犯罪가 頻發하고 있음.
- 또한 個人間的 『顏面』, 金品授受에 의한 業務處理 등 不條理 現象이 一般化되어 있고, 勞動者들은 勞役忌避 風潮가 蔓延, 共產主義國家에서 強調되고 있는 集團主義·協同主義 精神이 오히려 극도로 缺如되어 있는 등 社會逸脫現象은 여러 側面에서 深化되어 있는 狀態임.

— < 證言 事例 > —

- 北韓전역에 절도·소매치기 횡행, 이들을 『생활조절위원회』라고 호칭 (’90年 歸順者)
- 특권층에 대한 불만팽배, 절도 등으로 증오심 표출(’90年 歸順者)
- 트럭운전사에 사례비 주고 장거리여행 일반화(’90年, 訪北者)
- 협동농장 관리 태만, 개인터밭에는 정성 (’91年 歸順者/’92年 訪北者)

(7) 對南認識

- 北韓住民들은 外部로부터의 情報가 철저히 遮斷, 자연히 韓國에 대한 實情에 밝지 못한 편이나, ’90년 韓·蘇 修交와 韓國의 對蘇借款 支援 報道, 그리고 蘇聯·東歐留學生들의 召還, 海外同胞들의 訪北에 따른 外部情報 流入 등으로 인해 韓國의 發展相에 대해 어느 정도 認知하고 있는 듯함.

- 특히 海外僑胞가 訪北하면 韓國의 親·姻戚 消息 및 韓國實相에 대해 公同연히 묻는 등 韓國에 대한 關心은 過去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 '89 『平壤祝典』 당시 北韓을 不法 訪問한 임수경事件에 대한 北韓 TV 등의 韓國 非難報道는 北韓 住民들에게 “왜 임수경 부모는 구속되지 않고 딸 면회까지 갈 수 있는가”, “임수경은 운동권 학생으로 가난한 줄 알았는데 집을 보니 굉장히 부유한 것 같다”라는 反應을 보이게 하는 등 오히려 韓國의 政治的 自由, 經濟發展에 대해 새롭게 認識시키는 契機가 되었다고 歸順者들은 證言하고 있음.

< 證言 事例 >

- 한·소 수교시 “소련이 남조선에 23억불에 팔려갔다”는 보도 후 오히려 한국의 경제발전상 인지 (’90年, 訪北者)
- 해외동포 방북시 휴대한 한국상품, 암시장에서 인기(’91年 訪中者)
- 임수경 방북후 북한주민들 한국의 자유실상 확인 (’89年 歸順者)
- 국제대회 참가 선수들, 한국 물품 구입 사용 (’91年 歸順者)

다. 留學生들의 認識變化

(1) 體制 및 政權批判

- 一般的으로 海外留學生들은 北韓의 閉鎖政策으로 인해 北韓內에서는 體制에 順應해 왔으나 留學後 外部文物을 접하면서 北韓體制 및 經濟 實情에 대해 問題點을 認識하게 됨.
- 이러한 現象은 비교적 자유로운 留學生活 및 同僚들간의 對話를 통해 認識을 共有하게 되고, 점차 體制 및 政權에 대한 비판으로 深化되어, 심지어는 南韓歸順 決行으로까지 連結되기도 함.

〈 證言 事例 〉

- 소련 오뎃샤대학생, 북한체제비판 편지 국가보위부에 적발·소환 ('90年 歸順者)
- 모스크바 동력대학생, 북한 경제정책 비난후 소환('90年 歸順者)
- 소련유학생들, 북한의 6.25 북침설에 대해 회의적 반응 ('90年 歸順者)

(2) 反 金父子 動向

- 北韓의 黨·政 幹部 및 一般住民들이 金正日의 失政에 대해서는 非難 하나 金日成에 대해서는 非難을 自制하는데 반해, 留學生들은 金父子를 공히 『除去되어야 할 人物』로 認識, 非難하는 것이 特徵임.

- 특히 이들은 모임을 통해 金父子 偶像化政策, 世襲體制, 金正日의 指導者 資質 등을 學論, 批判하는가 하면 金日成 뺏지 패용을 回避하는 등 反 金父子 性向은 그 어느 階層보다도 심각한 정도임.

— < 證言 事例 > —

- 까잔종합대학 研究生, 부자세습체제 · 숭배주의 비판 소환 ('90年 歸順者)
- 소련유학생 90%, 북한체제 불신 · 비판 ('90年 歸順者)
- 모스크바종합대학, 김부자 숭배주의 비판 · 소환 ('90年 歸順者)
- 소련유학생들, 김일성 뺏지패용 회피 · 『구호나무』 실제 의심 ('90.4 歸順者)

(3) 自由 · 開放風潮 蔓延

- 대부분의 留學生들은 留學後 1 - 2년간은 北韓에서의 組織生活 習性으로 인해 學業에만 熱中, 旅行 · 私生活 등을 自制하는 傾向이나, 3 - 4년이 지나면서부터는 學業을 怠慢히 하고 自由生活을 만끽하려는 風潮가 濃厚함.
- 이는 歸國後 北韓에서의 統制生活을 憂慮한 나머지 우선 즐기자는 風潮가 一般化되고, 蘇聯 · 東歐의 改革 · 開放 바람으로 自由에 대한 憧憬 등 『삶의 認識』 變化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證言 事例 〉

- 유학 1-2년생 성적 상위권, 3-4년생 성적 중·하위권 하락
('90年 歸順者)
- 유학생 상급반, 자유생활 만끽 풍조 만연
('90年 歸順者)

(4) 對南認識

- 北韓의 留學生들은 留學生活中 現地 言論報道를 통해 韓國의 經濟的 發展·政治的 自由 등에 대해 대체로 소상히 알고 있으며, 韓國歌謠도 즐기는 등 비교적 韓國社會에 대해 肯定的인 성향이 강함.
- 특히 北韓留學生들의 이러한 對南認識은 過去 舊 蘇聯·東歐 등 社會主義 國家의 官製言論의 歪曲報道性向에도 불구하고 客觀的인 立場에서 南北韓을 比較 分析, 스스로의 터득을 통해 도달한 結論이라는데 注目 할 必要가 있음.

〈 證言 事例 〉

- 한국경제 발전상, 정치적 자유, 문예창작의 자유 인지
('90年 / '90年 歸順者)
- 북한유학생 80% 이상, 한국가요테이프 소지·한국가요 인기
('90年 歸順者)
- 독일처럼 한국주도의 흡수통일 희망
('90年 歸順者)

(5) 對美認識

- 北韓 留學生들은 留學前에는 北韓의 宣傳에 의해 美國을 『원수의 나라』로 憎惡했으나, 留學生活을 통해 美國을 自由와 平等이 保障된 나라로 認識, 好感을 갖게 됨.

〈 證言 事例 〉

-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 자유·평등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으로 인식
('90年 歸順者)
- 북경유학생, 미국·일본사람은 친절한데 오히려 소련·중국사람
들이 자기들을 박대한다고 불평
('91年 訪中者)

— < 證言 事例 > —

- 유학 1-2년생 성적 상위권, 3-4년생 성적 중·하위권 하락 ('90年 歸順者)
- 유학생 상급반, 자유생활 만끽 풍조 만연 ('90年 歸順者)

(4) 對南認識

- 北韓의 留學生들은 留學生活中 現地 言論報道를 통해 韓國의 經濟的 發展·政治的 自由 등에 대해 대체로 소상히 알고 있으며, 韓國歌謠도 즐기는 등 비교적 韓國社會에 대해 肯定的인 성향이 강함.
- 특히 北韓留學生들의 이러한 對南認識은 過去 舊 蘇聯·東歐 등 社會主義 國家의 官製言論의 歪曲報道性向에도 불구하고 客觀的인 立場에서 南北韓을 比較 分析, 스스로의 터득을 통해 도달한 結論이라는데 注目 할 必要가 있음.

— < 證言 事例 > —

- 한국경제 발전상, 정치적 자유, 문예창작의 자유 인지 ('90年 / '90年 歸順者)
- 북한유학생 80% 이상, 한국가요테이프 소지·한국가요 인기 ('90年 歸順者)
- 독일처럼 한국주도의 흡수통일 희망 ('90年 歸順者)

(5) 對美認識

- 北韓 留學生들은 留學前에는 北韓의 宣傳에 의해 美國을 『원수의 나라』로 憎惡했으나, 留學生活을 통해 美國을 自由와 平等이 保障된 나라로 認識, 好感을 갖게 됨.

— < 證言 事例 > —

-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 자유·평등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으로 인식
('90年 歸順者)
- 북경유학생, 미국·일본사람은 친절한데 오히려 소련·중국사람
들이 자기들을 박대한다고 불평
('91年 訪中者)

III. 最近 北韓住民 意識變化 動向 特徵

- 北韓體制 및 政權에 대한 批判은 經濟失政· 지나친 統制政策 등에 대한 不滿에서 비롯, 점차 金父子 批判으로까지 擴散되고 있으나 階層別로 다소간의 相異點을 보이고 있는 바,
 - 指導層의 경우, 비교적 多樣한 情報채널로 인해 北韓의 諸般 問題點을 認識하고 있고, 金正日의 政策路線 및 專橫에 강한 不滿을 表示하고 있으나, 金日成에 대한 忠誠心은 비교적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 一般住民의 경우, 外部情報 統制로 인해 北韓이 처한 現實에 대해 無知, 體制批判 보다는 극심한 生活苦에 대한 不滿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특히 金正日이 政治에 參與하기 시작한 '70년대 中盤부터 經濟가 나빠졌다고 判斷, 金正日의 指導者的 資質에 대해 懷疑感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金日成에 대한 信賴感은 대단하며,
 - 留學生의 경우는 海外留學中 知得한 多樣한 情報로 北韓의 現實과 南北韓의 經濟隔差 등을 比較的 소상히 認識, 그간 北韓의 宣傳에 기만당했다는 霧圍氣가 澎湃하여, 體制批判과 함께 金父子를 공히 非難하고 있는 점이 特徵임.
- 北韓社會內的 反體制 組織 徵候는 統制·閉鎖體制的 特性上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召還된 留學生·인텔리 階層을 중심으로 一部

不滿을 가진 軍 및 黨 幹部들도 連繫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最近 蘇聯邦 解體, 東歐 共產主義 諸國의 沒落 및 北韓의 加重된 經濟難과 맞물려 서서히 可視化되는 趨勢에 있는 것으로 判斷됨.

- 특히 이들은 비밀리에 勢力을 糾合, 地下組織網을 構築하는 段階로까지 發展하고 있고, 一部地域에서는 契機만 주어진다면 「人民蜂起」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推測되는 바, 이는 向後 北韓當局의 體制維持와 關聯하여 심각한 威脅要因으로 作用할 것임.
- 政策 및 意識變化 徵候에 있어서는 北韓指導層이 政策 變化에 다소 경직된 立場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一般住民들은 社會變化 흐름에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姿勢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全體的으로 社會氛圍氣는 점차 開放氛圍氣로 흐르고 있는데, 最近 北韓當局은 비록 消費財에 限한 것이기는 하나 私有財産의 所有를 一部 明文化하는가 하면, 宗教活動 및 省墓도 部分的으로 認定하는 趨勢에 있고, 一般住民들은 勞動黨 入黨을 過去에 비해 별로 重要視하지 않고 服裝도 多樣化되는 등 自由奔放한 意識變化 樣相을 表출하고 있음.
- 自由, 開放風潮에 대한 選好는 指導層·一般住民·留學生 할 것 없이 대단한 것이어서 資本主義 文物을 選好하는 傾向이 一般化되어 있으며, 部分的으로는 資本主義의 頽廢文化조차 流入, 體制弛緩現象의 要因이 되고 있음.

- 그러나 自由·開放風潮에 대한 選好는 北韓社會 開放의 가장 큰 動因으로 作用, 결국 社會變化의 起爆劑 役割을 할 것임.
- **社會不條理 및 逸脫現象** 指導層·一般住民 공히 擴散趨勢에 있는데, 指導層의 경우 賂物授受 形態로, 一般住民의 경우 절도·勞役忌避 등의 形態로 表面化되고 있음.
 - 특히 절도의 경우『가진 자』들 것을 가져간다 하여『생활조절위원회』라고 通稱, 절도자체에 대한 道德的 不感症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 社會底邊에 깔려있는 심각한 體制不信 및 構造的 矛盾을 나타내는 한 斷面이라 할 수 있음.
- **對南認識**은 北韓의 高位層·一般住民·留學生 각각의 독특한 情報入手 채널로 인해 多樣한 樣相으로 表출되고 있는 바, 北韓의 高位層은 韓國의 政治·經濟發展에 대해 소상히 認知, 韓國을『警戒의 對象』으로 삼고 있고, 下級幹部 및 一般住民들은 政治·思想教育의 影響과 外部情報의 遮斷으로 인해 韓國을『美帝의 植民地·打倒對象』으로 認識하고 있는 반면, 留學生들은 海外에서의 經驗을 통해 自由의 소중함을 體得, 韓國 社會를『憧憬의 對象』으로 認識하고 있음.
 - 그러나 全體的으로 韓國의 經濟發展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認知, 過去 一方的·否定的 對南認識은 많이 褪色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IV. 向後 北韓의 社會變化 展望

- 北韓은 現在 對外的으로 蘇聯邦 解體 및 東歐 共產圈 崩壞, 韓中修交 등에 따른 國際的 孤立, 그리고 對內的으로 中央執權的 計劃經濟의 限界로 인한 經濟沈滯, 住民들의 自由에 대한 期待 慾求 등 改革·開放에 대한 內·外壓에 直面, 어떠한 形態로든 變化를 試圖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처해 있음.
- 그러나 北韓 指導層은 東歐 社會主義 諸國의 沒落, 특히 東獨과 같은 前轍을 밟지않기 위해 內外情勢에 적절히 對處하면서도 變化에 따른 衝擊을 最小化하기 위해 『위로부터의 改革』, 즉 『統制된 變化』 만을 試圖하고 있음.
- 한편 最近 北韓住民들은 制限的이나마 訪北僑胞를 통한 西方文物의 流入, 韓·蘇 및 韓·中修交와 韓國의 對蘇借款 支援報道에 따른 韓國의 政治·經濟 發展相 認知, 그리고 무엇보다도 全國 각지에 分散配置된 召還 留學生들을 통한 外部情報의 知得 등으로 北韓의 政治·經濟的 問題點을 비로소 自覺하기 시작, 『아래로부터의 變化』 慾求도 서서히 胎動하고 있음.

- 특히 海外勤務者 및 留學生·教授 등 知識層은 北韓의 閉鎖·統制體制 및 獨裁政治에 厭症을 느낀 나머지 反政府 性向을 가지고 있거나 이들을 中心으로 反體制 組織 徵候도 보이고 있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도 感知되고 있음.
- 어쨌든 北韓 指導層의 『意圖된 變化』이든 一般住民들의 『자연스런 變化』이든 지금 北韓社會는 變化局面에 접해 있는데, 이러한 上·下層 部의 變化움직임은 서로 어떻게 적절히 調和를 이루면서 外部의 改革·開放바람에 對處해 나가느냐가 北韓 社會變化 向背의 重要的 關鍵이 될 것임.
- 즉, 一般住民들의 『밑으로부터의 改革』慾求가 上層部의 『統制된 變化』 意圖를 上廻하려 할 경우, 北韓 指導層은 이를 體制威脅要因으로 간주, 보다 경직된 姿勢를 堅持할 것이며,
- 반면 北韓指導層의 改革意志가 一般住民들의 期待慾求에 현저히 못미칠 경우, 教授·學生 등 인텔리층을 中心으로 한 體制不滿勢力의 改革慾求는 더욱 增幅될 것임.
- 따라서 以上の 內容을 綜合해 볼 때, 北韓 指導層은 内外의 狀況變化에 적절히 對應하면서도 住民들의 政治·思想 教育을 強化, 北韓社會를 당분간 그들의 『意圖된 改革』대로 主導해 나가려 할 것으로 展望됨.

〈添附〉

歸順者・訪北者 證言事例

.

◇ 위로부터의 變化 動向 ◇

區分	內 容	出 處
體	<p>< 북한외교체제비판 ></p> <p>○ 00주재 북한대사관 00참사관은 88년 10월 유학생들과 음주시 “북한을 갑자기 개방하면 인민들이 체제모순을 알게되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조국의 개방화는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언급하는 등 체제비판 발언을 했음.</p>	귀순자
制	<p>< 북한실상비판·회의 ></p> <p>○ 89년말경 평양 모대학 교수가 북조선 실상을 비난하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글을 쓰고 자진 체포되어 투옥되었음.</p>	귀순자
및	<p>○ 군간부도 음주 환담시, “북조선의 생활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개할 정도로 낮다. 북조선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따라 갈려면 까마득하다” 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음.</p>	귀순자
政	<p>○ 본인의 친척 한 사람(북한 고위간부)이 00 00에 왔을 때 처음에는 북한체제 및 김일성 찬양발언을 했으나 체류중 차츰 중국의 자유스러움과 한국의 경제발전을 인지하고는 북한체제에 대해 회의 및 배신감을 느낀 듯 「개새끼」 라고 하면서 김일성 뺨지를 때어 버렸음.</p>	기 타
權 批 判	<p>< 관부들의 무사안일비판 ></p> <p>○ 000 주재 북한대사관 무관은 “북조선이 발전 못하는 것은 간부들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위 간부들이 주민의 어려운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이나 그 가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현직을 유지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고 불평했음.</p>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p>< 기념비적 건설사업의 비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의 『중앙 000 번역국』에 근무하는 조선인 학자가 00 경제 대표단의 통역관으로 평양방문시, 00 대표단이 주체사상탑의 규모(높이 170m)에 감탄하자 안내를 맡은 당 간부는 “ 좋으면 뭘하나, 거기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 라고 불평했다 함. ○ 88년초 김책공대 교수 1명이 남포갑문의 정치·군사적 건설 가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기념비적 건설사업에 대해 비판하다가 산간오지로 추방되었다 함. <p>< 경제체제 개혁 건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김책공대 학장 000 00은 83년경 북한경제가 발전하려면 도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김정일의 비위를 거슬려 철직되어 0 0과학원 산하 노동보호연구소장으로 좌천되었음. ○ 87년 00 과학원 설계실장이, “ 북한도 중국처럼 개인에게 토지를 분배, 소작형식으로 농사지어 국가에 바치는 제도를 일부 시범 실시하자 ” 고 건의한 후 철직됨. ○ 87년 4월 00 경제대학 교수들이 당 중앙위원회에 연명으로 “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협동농장제를 폐지하고 중국처럼 가족단위로 농사를 짓게 해야 한다 ” 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수정주의로 몰려 가족과 함께 불상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는데, 교육·문화부문 000 00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화학공업부 00으로 좌천시킨 바가 있었음. ○ 평양거주 3대혁명 소조원이 중앙당 伸訴課에, “ 경제정책이 현 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가 발전하려면 개인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고 투서하자 이를 처벌했음. 	<p>기 타</p> <p>귀순자</p> <p>귀순자</p> <p>귀순자</p> <p>귀순자</p>

區分	內 容	出 處
反	<p>< 김일성 암살기 ></p> <p>○ 편직물공장을 북한에 헌납하고 복송된 어느 재일교포는 김일성 접견도 하는 등 신임이 각별하였으나 '75년경 김일성 연도 환영행사시 암살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행방불명되었음.</p>	귀순자
金	<p>< 김정일이 불만 총리직 사임 ></p> <p>○ 전 총리 000은 평소 자신을 김일성이 키워주었다고 인식하고 김정일에 대해 비위를 맞추지 않는 등 그의 미움을 사게 됨으로써 김정일이 그의 정책건의를 사사건건 비토하는데 불만, 총리직을 사임했다 함.</p>	귀순자
父	<p>< 김정일과 알력 ></p> <p>○ 82년초 당시 국가보위부장이던 000가 김정일과 세력다툼으로 상호알력이 심화되자 김정일이 중앙당 구릅파를 은밀히 조직, 000 거소를 심야에 급습·체포하여 가족과 함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시켰다 함.</p>	귀순자
子	<p>< 000 아들, 김정일과 알력 ></p> <p>○ 최근 소·동구권 개방과 관련, 김정일과 부주석 000 아들(사단장)간의 세력다툼으로 인한 정치적 알력이 있다는 말이 00 유학생들간에 유포되어 있음.</p>	귀순자
動	<p>< 주석「폰드」비판·해임 ></p> <p>○ 89년초경 당시 총리 000는 회의석상에서 주석「폰드」제가 경제운영 및 나라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주석「폰드」제를 없애자고 주장했다가 김정일·오진우로부터 김일성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질책을 받고 철직되었다 함.</p> <p>* 「주석폰드」는 김일성 교시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쓰여지는 별도 예산</p>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p>< 김일성종합대 교수, 김정일 축출 예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에서 만난 김일성종합대 출신의 00 교수는 김정일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건, 개방을 하건 어차피 제거될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화국붕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단정함. <p>< 고위간부, 반김정일세력 형성 시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00에서 만난 북한의 한 고위간부는 “우리가 수령님은 존경하지만 김정일 저 새끼는 죽여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현재 북한에는 반김정일 세력이 깊이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절대로 김정일은 대를 잇지 못할 것이라고 했음. <p>< 김정일 비방 뼈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년 2월 000 청사내에서 김정일의 문화·예술분야 우대정책을 비방하는 뼈라가 발견되자 당시 00을 포함하여 000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필적감정을 실시하였으나 범인은 체포하지 못하였음. 	<p>기 타</p> <p>방북자</p> <p>귀순자</p>
<p>體 制 危 機 意 識</p>	<p>< 동구변혁에 당황, 자신감 상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거나 흐름을 듣고 있는 북측인사들은 동구의 사회주의체제 변혁에 대해 몹시 낙담하거나 당황한 듯이 보였고, 또한 경제의 궁핍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듯이 보였음. <p>< 사회주의체제 한계인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원 고위급, 000 과장급 이상 등 국제정세를 알고 있는 관리들은 “남한이 4대강국으로부터 내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국력도 우세하여 남한에 의해 통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경제관리들은 “지금같은 방법으로는 50년이 가도 해결이 안된다”며 사회주의체제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 그러나 독일식의 흡수통일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온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원치 않고 있음. 	<p>방북자</p> <p>귀순자</p>

區分	內 容	出 處
	<p>< 북한체제 문제점 인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로 돌아오기 전날 저녁에 『내 자신을 알라』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내용은 인민들이 자기 희생정신과 혁명적 정신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북한체제에 대해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 동구와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보였음. ○ 〇〇이 북한 안내원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오?” 라고 질문하였더니 오히려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보느냐?” 고 북한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되물은 것으로 보아 피부적으로 어느정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음. <p>< 반간첩 전람관 운영과 남한귀순 방지교육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위부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대타령동에 『반간첩 전람관』을 운영하면서 해외파견자의 사상해이 및 남한귀순 등을 우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전람관을 견학토록 하고 한국인 등 접촉에 따른 위험성을 교육시키고 있음. <p>< 차상강화 및 라디오, 외국테이프 등 소지 단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당국은 소련·동구 국가들의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몰락사실이 해외여행자 및 방북 외국인 등에 의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사회주의 우월성 등 학습강화와 해외출장자들의 외국잡지, 테이프 등의 휴대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시로 TV를 통해 체코·유고 등의 실업항의 군중시위, 강도·절도 등 사회혼란과 무질서 실태를 방영, 개방이후 문제점을 부각 선전하고 있음. ○ 사회안전부에서는 라디오에 이어 녹음기도 등록토록하여 소지자 파악을 강화하고 불시검문이나 가택수색을 하여 외국음악이나 남조선노래 테이프가 적발될 때는 지방추방 등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음. 	<p>방북자</p> <p>방북자</p> <p>귀순자</p> <p>귀순자</p> <p>귀순자</p>

區分	內 容	出 處
	<p data-bbox="329 308 820 351">< 북송교포 감시 통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311 402 1375 639">○ 모든 북송교포들은 국가보위부에서 감시대상으로 묶어 『귀국자 동향 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는데, 감시·통제 방법은 북송교포간 동향파악, 또는 기업소내 북송교포 고용비율 제한 등으로 반체제 조직화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li data-bbox="311 690 1375 876">○ 북송교포는 사상적으로 불순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전방 지역 거주가 허용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분산거주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평양, 신의주, 청진, 함흥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 <p data-bbox="311 978 820 1021">< 성분불량자 부당 처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311 1072 1390 1411">○ 북한은 56-60년간 6.25 당시 치안대 가담자, 종파분자 등 소위 반동분자나 그 가족을 색출·숙청한데 이어 김일성의 『평양을 혁명의 수도, 붉은수도로 만들데 대한 당 방침』에 따라 60-80년 사이 연 2회(봄, 가을) 주민성분 재검토사업을 실시한 후 월남자, 종파분자, 지주, 부농 출신 등 성분불량자의 가족을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등 북부 지방으로 강제이주시켰음. <li data-bbox="311 1462 1372 1648">○ 80년경 보위부에 비협조적인 자, 당비서에게 잘못 보인 자, 불구자 가족들을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한 바 있는데, 평양시민들의 민심이 동요하는 기미가 보이자 새로운 월남자 등 현행범 가족만 처벌하였음. <p data-bbox="311 1750 820 1793">< 해외파견자 탈출 우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311 1844 1390 2081">○ 당·행정조직 및 각급기관·기업소에서는 김정일의 외화 벌이 사업 강화지시에 따라 노동자 등의 해외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외교부, 국가보위부 등이 해외취업자의 탈출을 우려, 파견자 수를 극히 제한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음. 	<p data-bbox="1512 402 1634 445">귀순자</p> <p data-bbox="1512 690 1634 733">귀순자</p> <p data-bbox="1512 1072 1634 1116">귀순자</p> <p data-bbox="1512 1462 1634 1505">귀순자</p> <p data-bbox="1512 1844 1634 1888">귀순자</p>

區分	內 容	出 處
反 體	<p>< 전북도정치보위부장 중심 반정부 쿠데타 계획 ></p> <p>○ 82년경 국가정치보위부에서 부장(○○)을 중심으로 부원들이 김일성·김정일체제 전복을 위한 반정부쿠데타계획을 수립,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탄로되어 보위부장을 비롯한 수십명이 숙청되었다고 하는 바, 당시 김일성은 국가정치보위부는 「정치」자를 붙일 자격이 없는 부서라면서 「국가보위부」로 개명토록 지시하였다 함.</p> <p>* '82. 4. 5,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 국가정치보위부 → 국가보위부 개칭</p>	귀순자
制 組 織 徵	<p>< 당시 반정부 조직 ></p> <p>○ 87년경 김책공대, 평양외국어대, 김일성종합대 학생들로 구성된 반정부조직이 보위부에 탄로, 일망타진되어 구성원 전원이 처형되었는데, 동 조직은 김일성 체제전복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북한의 정치·경제제도의 잘못을 비판·선전하는 소그룹을 점차 확대 부식하는 방법으로 반정부활동을 한 바, 조직 책임자는 당○○위원회 간부였다는 설이 있음.</p> <p>* ○○○은 87년 8월 일시 방북시, ○○ 인민학교 동창 ○○○(○○)가 동 사건에 연루, 총살되었다는 것과 김책공대 당비서가 연간총화시 “금년도 가장 큰 성과는 대열내에 잠복하고 있는 반당·반혁명조직을 들추어 낸 것이었다”라고 한 강연내용을 득문</p>	귀순자
候	<p>< 반체제조직 구축 ></p> <p>○ 88년 6월경 공군소좌를 책임자로 한 대규모 반체제조직이 적발되어 조직원 대부분이 처형되었다고 함. 동 조직은 대학생·인텔리·중견간부 등을 중심으로 1-2년 전부터 전국 규모의 조직망을 구축하였으며, 철저한 조직원 비밀체계를 유지, 상층부 20여명이 검거되지 않았다 함. 89년 2월경 ○○○ 종합대학 및 ○○○ 종합대학 등 유학생 2명이 동 조직에 관련되어 사상범으로 소환된 바 있음.</p>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p>◁ 북송교포 반체제모임 조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년 중반경 도쿄대학, 교토대학 출신 북송교포들이 대학 교원으로 배치받은 후 반체제 모임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행방불명되었음. 	귀순자
<p>政 策 變 化 徵 候</p>	<p>◁ 사유재산 인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북한당국으로부터 시멘트·벽돌 등을 지원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한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가 가능하며, 비록 등기 등 완전한 개인소유권이 제도화 된 것은 아니나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함. <p>◁ 제사·성묘 허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것은 허용되고 있는데, 특히 1호 호위사령부(김일성 경호부대) 근무자의 말에 의하면, 김일성도 제사를 지내며 김형직(김일성 父), 김보현(김일성 祖父) 무덤에 성묘도 한다 함. <p>◁ 자본주의 영화 상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소련, 체코, 헝가리, 유고, 폴란드 등 소·동구권 영화를 영화관이나 만수대TV(토, 일요일)를 통해 주로 방영하였으나, 91년부터는 일본영화인 『손오공』, 『설녀』 등과 홍콩영화 등 자본주의나라 영화도 방영함. 	<p>방북자</p> <p>기 타</p> <p>귀순자</p>
<p>自 由</p>	<p>◁ 자본주의 제품 선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당간부는 양담배를 애용하고 있었는데, 양담배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〇〇 체류중 담당지도원 대부분이 〇〇 수용호실을 수시 방문, 국산 88담배·컵라면·커피·양말·팬티·검·남한가요테이프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음. 	<p>방북자</p> <p>기 타</p>

區分	內 容	出 處
開 放 風 潮 蔓 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사 000·조기장 000은 소형 국산 카세트와 조갑경·이미자·현철·주현미 등의 가요테이프를 수용호실에 보관하면서 이들 가요를 청취하였는데, 북한 지도원 3명은 이들 방을 수시로 출입하며 헤드폰을 끼고 남한가요를 청취한 후 남한가요가 좋다고 함. 	기 타
	<p>〈 과소비 및 외제선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일부 간부층에서는 수년전부터 외화유입 및 뇌물성행 등으로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들은 스시, 사시미 등 일본요리와 불고기를 즐겨먹고 기린, 산토리 등 일제맥주나 양주를 마시며 로스만담배를 피우고 신문을 과시함. 	귀순자
	<p>〈 매춘·퇴폐공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이 “매춘부가 없어 재미가 없다”는 등 불평을 토로하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매춘부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창광산호텔 등에 투숙시켜 관광객 대상 매춘행위를 시키고 있음. 	귀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1월초 왕재산예술단이 방소, 소련 국영 TV에서 2회 공연을 하였는데 종전과 달리 반나체로 출연하여 소련인들을 놀라게 하였음. 	귀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은 평양축전 외국대표단장 등을 중앙당 연회장으로 초청하여 「기쁨조」에게 반나체쇼를 공연토록 하여 관람교포들로부터 빈축을 받았다 함. 	귀순자
指 導 層	<p>〈 뇌물수수 부정입학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외국어학원은 고등중학 과정으로, 졸업후 외국유학 및 대사관 근무 등 특전이 있어 중앙당 간부들은 자녀를 동교에 입학시키려고 갖은 뇌물을 쓰고 있는데, 87년 9월경 동 000이 뇌물수수 등 부정입학 혐의로 철직되었음.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不 條 理	<p>< 김일성 초상 현상 뺏지 암거래 ></p> <p>○ 당간부 및 고위층 자식들은 김일성 초상휘장 분실시 무료로 보급받을 수 있는 여건과 최근 북한 젊은층들 사이에 자신들이 높은 신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심리가 퍼져있는 점을 이용하여 김일성 당기상 초상 뺏지를 개당 40원에 암거래하는 사례가 허다함.</p>	귀순자
	<p>< 외국주재 상사원 부패 만연 ></p> <p>○ 북한의 상사들은 ○○ 상사에 코미션을 주고 중국-홍콩간의 실제 계약금액에 10%정도를 추가하여 작성토록 하고 다시 북한-홍콩간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외화를 착복한 후 벤츠나 기타 필요물품을 구입하고는 ○○ 상사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위장하는 등 상사원의 부패가 만연되고 있음.</p>	귀순자
	<p>< 대사관 직원 관전 치기 ></p> <p>○ ○○주재 북한대사관원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 거주 조선족을 이용하여 북한돈을 ○○ 인민화폐로 교환후 다시 달러로 환전, 재미를 보고 있음. 즉 북한돈 12원을 인민페 6원과 교환하여 ○○ 암시장에서 1달러로 환전한 후 평양에서 1달러를 북한돈 80원으로 재환전하고 있음.</p>	귀순자
	<p>< 처녀선발 간부 술시중 ></p> <p>○ 북한에서는 미모의 20세 전후 처녀들을 선발, 별장에 기거토록 하면서 “당 간부를 모시는 것도 당에 충성하는 길”이라며 당정치국원·정무원 부장급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술시중을 들도록 하고 있음.</p>	귀순자
	<p>< 행복조 기쁨조 김부자 접대원 ></p> <p>○ 최근 북한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왕재산 경음악단 및 보천보 전자악단은 김부자 전용밴드로 행복조는 김일성, 기쁨조는 김정일 전용 접대원으로 알려져 있음.</p>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p>< 음란비디오의사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년 2월경 중앙당 과장급 이상 간부부인 10명이 수차례에 걸쳐 은밀히 불상 간부집에 모여 음란비디오를 시청한 사실이 인민반원의 고발로 국가보위부에 적발되어 남편들이 요직에서 철직되고 불상지역으로 추방되었음. ○ 88년 3월경 만경대구역 당비서 등 당간부 3명이 여자 3명과 함께 음란비디오를 시청하고 디스코춤을 춘 사실이 국가보위부에 적발되어 전원 철직 추방되었음. 	<p>귀순자</p> <p>귀순자</p>
對 南 認 識	<p>< 남한경제발전사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5월 레닌그라드 유학생 2명의 남한귀순 이후 재소 유학생들의 사상검열차 파견된 중앙당 검열단원인 당 과학교육부 유학생 지도과장(○○) 이 ○○○○ 시 유학생을 대상으로 “남조선이 TV·비디오를 만들어 내는 등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본질은 철저한 예속경제이다”라고 교육, 결과적으로 한국의 발전상을 시인하였음. ○ 91년 2월 ○일 ○○직후 선박내에서 북한군 장교(소좌) 1명은 남한의 경제발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들의 생활상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심각하게 경청하였음. ○ 91년 2월 ○○일 한국으로 귀환하기 위해 ○○항 출항시 한 지도원은 “남한이 많이 발전한 것 같다. 북한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남한은 경제기술이 발달되었으니 통일이 된다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기관사 ○○○가 “같은 배에 탔으니 이대로 남쪽까지 가자”고 하자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라고 답변하였음. <p>< 남북경제격차인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시내 곳곳에 「우리는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슬로건이 수없이 나붙어 있었으나 우리들을 안내한 대부분의 북측사람들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남과 북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p>< 남한사회소식장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이중적인 면도 있었는데, 인민들이 바깥 소식에 감감한 반면 지도층은 남한의 TV프로와 청문회 소식까지 환하게 아는 등 남한사회 실정에 밝았음. 	<p>귀순자</p> <p>기 타</p> <p>기 타</p> <p>방북자</p> <p>방북자</p>

◇ 아래로부터의 變化 動向 ◇

區分	內 容	出 處
體	<p>< 북한 경제정책 비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년초 김일성종합대학생들이 남한방송을 몰래 청취, 북한경제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김정일에게 “경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자 김정일은 즉시 체포하라고 지시, 1명은 검거 처형되고 1명은 자살했는데, 이 사건이후 88년 8월 사회안전부는 모든 라디오의 재등록과 남한방송 청취금지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음. 	귀순자
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경 평양의 모대학 학생이 “북조선의 경제정책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고 만다”는 내용의 자필 책자를 작성, 동료학생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 회람시키다가 국가보위부에 밀고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함. 	귀순자
및 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상당수의 지도층 인사들은 북한의 경제낙후 실정에 대해 “이래서는 안된다. 정치개혁은 못하더라도 경제개혁은 해야된다”는 등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90년 7월 주 000 북한대사관에 2등서기관으로 파견된 보위부원 000 (00세)은 “지금 부부장들이나 당비서들까지도 모여 앉으면 물자부족을 들어 당의 정책을 시비하고 있다. 생각같아서는 모두 잡아들이고 싶지만 배경이 있는 자들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가둘 수도 없는 형편이다” 라고 하였음. 	귀순자
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년 1월 초순경 김일성대학 및 김책공대생 등 2명이 북한의 경제운영체제를 비난하는 무기명 편지를 김정일에게 우송하였다가 보위부의 필적 감정으로 검거되었다 함. 	귀순자
批 判	<p>< 북한체제 비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 11월경 00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체제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 요원 5명이 야간에 승용차·트럭으로 가구일체를 싣고 가족과 함께 연행해 가는 것을 00이 직접 목격하였음. ○ 89년초경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과 학생 6명이 『중앙당에 제기하는 10가지 물음』이라는 반체제 유인물을 제작, 중앙당사 벽·김일성광장·지하철역 등에 부착·살포 후 수배되자 1명은 김일성종합대학 옥상에서 투신자살하고 나머지 관련자 전원은 체포되었음.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12월경 고려호텔 앞에 타이핑된 북한체제 비난띠라가 살포되어 보위부에서 타자수들을 조사후 범인을 검거, 처벌했다 함. 	귀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베리아 북한 벌목인부들은 비교적 소상히 외부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 및 권력세습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불만이 누적되어 있고 시베리아 근무조건에 있어서도 드러내 놓고 이야기는 않지만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임. 	귀순자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 10월경 평양시 대의원 선거를 위해 당에서 추천한 단일입후보자 명단을 게시하자 중구역 보통문동에서 게시 내용을 칼로 찢어버린 사건이 발생하였고, 만경대구역 서산동에서는 칼로 찢고 「선거반대」 등 반정부구호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귀순자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 12월경 김형직사범대학 노작교원이 자신의 궁핍한 생활에 불만을 품고 중앙당 지도원급 이상이 거주하는 평양 창광거리에 “개새끼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보라”는 내용의 띠라를 야밤에 부착하다 피검, 통제구역에 수용되었다 함. 	귀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에는 노동자·농민들도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은 없더라도 자본주의국가가 비교적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이들은 “잘 먹고 잘 입혀주는 정치가 좋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하루라도 빨리 남한측에 의해 통일이 되었으면 하고 있음. 	귀순자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8월 평북 신의주에서 식량부족으로 1개월가량 식량 배급이 중단, 지연되자 수백명의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집단시위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당황한 김정일은 평양에 비축중인 쌀을 급송, 배급토록 하고 양정일꾼들의 처벌을 지시하여 사태를 진정시킨후 국가보위부에서는 은밀히 주동자를 색출, 통제구역에 수용시켰음.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反 金 父	<p>< 김정일 통치능력 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75년경부터 경제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김정일의 통치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함. ○ 88년경 김일성종합대학 자연과학부 이과계통 학생 수명이 김정일에게 공장·기업소 가동중지 및 간부들의 뇌물수수 행위 실태 등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인민의 생활이 곤란 하니 올바른 정책을 집행하라는 내용의 무기명 투서를 보냈는데, 김정일이 필체를 검열하여 색출하라고 지시, 전원 검거되어 탄광으로 추방되었다 함. ○ 김정일은 87년 김일성 생일 75주년을 맞아 김일성 찬양 공연을 한 출연예술인 5,000명 전원에게 칼라TV 1대와 공로메달 수여를 지시하였는데, 동 소식을 들은 평양주민들은 나라경제가 어려운 판에 춤이나 노래 한번 부른 연예인들에게 TV와 메달을 주었다니 한심하다고 불평하였음. 	기 타 귀순자 귀순자
子	<p>< 김부자 失政 비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년 8월 동료유학생이 방학을 이용하여 북한체류중, 북한 대학생 친구들로부터 김부자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김부자가 없어야 북조선이 잘 산다는 등 공공연히 김부자를 비난하는 것을 득문하였다 함. 	귀순자
動 向	<p>< 반김부자 반항의식 팽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 10월 00이 근무하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 김일성이 방문한 바 있는데, 방문 20분전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어 방문중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연발한 사건이 있었음. ○ 북한의 00함대사령관 000은 酒席에서 “우리중에 심장이 큰 사람이 없어서 말만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함. ○ 지방주민들은 김일성 생일행사에 대해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잔치만 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았음. 	귀순자 귀순자 방북자

區分	內 容	出 處
	<p>< 이상승배 반대 ></p> <p>○ 89년 00유학중 집단소환된 유학생중 1명이 북한의 생활에 적응치 못하고, 90년 초경 평양 지하철 역에서 「이상승배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5분간 시위를 하다가 국가보위부에 피검된 사건이 발생하였음.</p> <p>< 김정일 공개 비난 ></p> <p>○ 종래에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은밀하게 김부자에 대한 비판을 해 왔으나 '91년초부터는 김일성 교시마저도 무시하며 김부자를 비난하며, 특히 김정일에 대해서는 “인민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기생(기쁨조 지칭)과 인민배우들만 끼고 노는 나라 망칠놈”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음.</p> <p>< 김평일에게 연민 ></p> <p>○ 북한 주민들은 결가지인 김평일이 머리가 좋고 김일성을 닮아 좋아하지만 “결가지에 연루되면 지방으로 쫓겨간다”는 소문으로 접촉을 기피함.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김평일이 김정일때문에 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p> <p>< 북송교포 김부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 ></p> <p>○ 북송교포들의 김부자觀은 공산주의 제도의 모순성, 유일사상 체제에 대한 권태감, 권력세습에 대한 잠재적 반발의식 등으로 극히 부정적임.</p>	<p>귀순자</p> <p>귀순자</p> <p>귀순자</p> <p>귀순자</p>
<p>反 體 制</p>	<p>< 기독교중심 비밀지하조직 구축 ></p> <p>○ 평안북도, 특히 신의주는 북한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일 뿐 아니라 중국의 소식이 빠르고 기독교의 비밀 지하조직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만 주어진다면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p> <p>< 북한당국에 의해 1990년 5-7월경 소환된 소련·동구유학생들은 3주간 재교육을 받은 후 현재 김일성대학 등에 재학중인데, 지난해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지하조직이 적발되어 문제된 바 있다 함. ></p>	<p>방북자</p> <p>기 타</p>

區分	內 容	出 處
<p>組</p> <p>織</p> <p>徵</p> <p>候</p>	<p>< 김일성종합대 동구 유학생 연계 반정부그룹 조직 ></p> <p>○ 85년 말경 김일성종합대학과 동구 사회주의국가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 연계된 반정부그룹이 조직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음.</p> <p>< 남한방송 청취 그룹 조직 ></p> <p>○ 88년 7월 김일성종합대생 15명이 『남조선 방송 청취 그룹빠』를 조직하여 수시로 남한방송을 청취해 오다가 그중 1명이 자신의 아버지와 대담중 무심코 “남조선 방송을 들어보니 사실과 다르더라”고 언동, 동 학생의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국가보위부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신고자의 자식을 제외한 14명 전원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건이 있었음.</p> <p>< 함흥·신의주 등지에서 학생 데모 ></p> <p>○ '91년 6월 함흥에서 80여명의 학생들이 데모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허기진 학생 몇명이 함흥의 한 식료품 창고를 습격하다가 살해된 데 분개하여 발생했다고 함. 또한 함흥데모 발생 10여일후 신의주에서도 200여명의 학생들이 군인들의 절도사건을 성토히기 위해 데모를 했는데, 이들은 모두 체포·행방불명되었다 함.</p>	<p>귀순자</p> <p>귀순자</p> <p>방북자</p>
<p>意</p> <p>識</p> <p>變</p> <p>化</p> <p>徵</p> <p>候</p>	<p>< 노동당원 인기 하락 ></p> <p>○ 과거 북한사회에서 출세의 척도는 몇살에 노동당에 입당하는가 였으나 4-5년 전부터는 입당자체를 중시하지 않고 입당을 자랑하면 촌놈이라고 놀림을 당한다고 함.</p> <p>○ 북한 남녀가 선호하는 결혼상대자는 전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당원이 중요한 조건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직업과 전망이 좋으면 당원이 아니더라도 좋다는 추세임. 즉 정무원의 무역부·외교부 직원 등 외국여행이나 외제물품·달러취득이 가능한 직업이 인기임.</p>	<p>기 타</p> <p>귀순자</p>

區分	內 容	出 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북한의 젊은이들은 결혼상대자로 노동당원 등 사상 성분이 좋은 자 보다도 돈 많은 북송교포나 뇌물을 많이 받는 간부자녀 등을 선호함. 	귀순자
	<p>〈 종교 및 무속신앙 관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종교인의 방북활동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종교가 미신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종교를 믿어도 되겠다” 는 등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귀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년경부터 중국·동구유학생들이 운명철학 서적을 번역, 평양에 반입하여 유포시킨 적이 있는데, 김정일은 “운명 철학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주체사상에 위배된다”고 하여 압수·통제토록 지시하였음. 	귀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평양시내에 암암리 관상장이 및 점장이가 등장, 점을 보거나 액운퇴치를 위해 부적을 소지하는 주민이 늘고 있는데, ○○은 88년 7월 ○○기술 대표단 ○○○으로 파견되기에 앞서 “외국사람들이 알잡아 보지 않고 병이 침입하지 않는다” 하여 만경대 구역 거주 여자 점장이에게 5원을 주고 칼모양의 부적 2개를 받아 몸에 지니고 다녔음. 	귀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점을 「사회주의의 적」으로 간주하여 종교와 동일하게 철저히 단속해 왔으나 80년대 중반부터 단속이 점차 완화되면서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점보는 행위가 번지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간부들까지도 신수, 장래문제, 궁합, 질병 등에 대해 점을 보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 점장이들은 주로 50대 이상 노파로 담배(1과), 돈(5-10원)을 복채로 받는다 함. 	귀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3월경 평양시 용악산의 유명한 점장이가 김부자를 위해 점을 본다는 소문이 높아 국가보위부에서 소문유포자를 체포·처벌한 바 있다 하며, 보위부 간부 부인들도 남편운세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점을 보며 짐쟁이들은 「외화와 바꾼돈」을 받으면 부정을 탄다며 복채로 북한 돈만 받는다 함. 특히 '91년 상반기에는 「미신행위를 근절할 것에 대하여」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있었을 정도로 무속신앙이 만연되고 있음.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自 由 · 開	<p>< 사랑을 주제로 한 청년의 인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는 짝사랑을 내용으로 한 록 풍의 가요 『휘파람』등과 같이 사랑을 주제로 한 러브송이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보천보전자악단』(단원 10명)이라는 팝그룹도 등장, 90년 7월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첫 공연을 가졌다 함. ○ 춘향전을 주제로 한 영화 『사랑 사랑 내사랑』(신상옥 감독)이 북한전역에서 대단한 히트를 하였는데, 그 원인은 사랑을 주제로 했기 때문임. 	방북자 귀순자
放 風	<p>< 남한가요 애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000 00들은 해외00후 남한가요 테이프를 은밀히 반입, 청취하거나 동료00들을 통해 남한가요를 배워 망년회·오락회 등 주연시 취기가 오르면 “혁명노래보다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자”고 제의하여 상호 목인하에 남한노래를 돌려가며 즐겨 부르고 있는데, 00들이 남한노래를 부르면 배석했던 지도원은 제지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줌. 	귀순자
潮 選 好	<p>< 디스코춤 유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87년 중반 김정일의 『디스코춤 허용지시』에 따라 디스코춤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88년 8월 대학생 10여명이 김일성 생가 『만경대』 뒷산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디스코춤을 추다 적발되어, 김정일은 “혁명의 요람지에서 개망나니 짓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디스코 춤을 추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들을 지방으로 추방시켰음. 	귀순자
	<p>< 쌍거풀수술 성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년경부터 평양거주 간부 딸이나 기관·기업소 근무 젊은 여성들이 평양의대 병원이나 적십자병원에 뇌물을 제공하고 쌍거풀수술을 받는 일이 성행하고 있음.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휴일이면 모란봉과 대동강 산책로에서 데이트하는 젊은 남녀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음.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평양에는 수년전만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바지차림의 여성들이 등장하고 브라우스, 치마 착용 등 옷차림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반지를 끼거나 목걸이를 한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은 89년 10월경 “조선땅에 달러가 판을 치고 조선인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다. 외화상점을 철저히 통제하라”고 지시, 평양시내 일부 외화상점을 일반상점으로 전환하는 등 외화상점 수를 줄이고, 출입대상도 외국인·교포·외교관 등으로 제한, 일반주민들의 출입을 금지시켰음. ○ 북한주민들은 달러만 있으면 양질의 외국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달러를 선호하고 있는데, 배급받는 담배를 외국인들과 달러로 교환하거나 여대생 등 처녀들의 경우 외국인들에게 달러(5-10\$)를 받고 율락행위를 하는 등 어린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달러 선호사상이 팽배해 있음. 	<p>귀순자</p> <p>귀순자</p> <p>귀순자</p> <p>귀순자</p>
社 會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에는 외화획득을 위해 평양주재 외교관이나 유학생 및 해외출장자 등을 대상으로 율락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점차 늘고 있음. 	<p>귀순자</p>

區分	內 容	出 處
逸	<p>< 나체사진 촬영 판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포거주 사진기사(00)가 사진을 찍으러 온 외화상점원(00)에게 환각제를 먹인 후 “나체사진을 찍어 남포항 정박 일본인에게 팔면 후과가 전혀 없으니 돈벌이 하자”고 유인하여 나체사진을 일본의 카바레 선전광고물로 팔아 넘겼는데, 동 사실이 발각되어 둘 다 공개처형되었다 함. 	귀순자
脱	<p>< 암거래 성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에 외화상점이 종래 5개에서 30개로, 외화식당이 2개에서 20개로 늘어났으며, 의복·신발·담배·주류 등의 암거래가 급증하고 있음. 	귀순자
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시장에서 90년에 100원하던 쌀 소두 1말이 91년에는 150원을 하고 있음. * 일반근로자 월급은 70 - 90원 	방북자
朕	<p>< 절도 횡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북한전역에서는 도둑·절도가 횡행하고 있는데, 도둑을 당한 쪽은 『조절 당했다』라고 표현한다 함. 즉, 이는 도둑질을 하면서 『공평하게 삽시다- (평남) 조절위원회』라고 써놓고 가기 때문이라 함. ○ 북한에서는 주민생활이 갈수록 악화되어 최근 소매치기 및 식량·빨래·신발 등을 훔쳐가는 좀도둑이 성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좀도둑이 『가진자』들 것을 가져간다 하여 이들을 『생활조절위원회』라 부르고 있음. ○ 시골의 단칸집인데도 울타리가 쳐있고 집집마다 자물통이 2-3개씩 걸려 있었는데, 이유를 물어본 즉, 배급받은 식량을 도둑맞기 때문이라고 함. ○ 북한 농촌에서 절도와 강도가 성행하여 분주소에서 선출된 농촌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을과 마을 사이 경계 지점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휴대품을 검색하는 등 자체 방범활동을 하고 있음. 	기 타 귀순자 방북자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축전에 대비 신축한 아파트를 간부 등에게만 배정함으로써 생필품 뿐만아니라 주거에서도 차등이 생겨 주민들의 특권층에 대한 증오심·반발심 등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둑과 소매치기가 성행,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을 훔쳐가거나 행인의 가방을 터는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주민생활면에서 농촌생활 환경을 볼 때 작년보다 더 어려워진것 같으며 도둑질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군부대 부근의 과수원 및 민가는 군인들에 의해 도난을 많이 당한다고 함. 	<p style="text-align: right;">귀순자</p> <p style="text-align: right;">방북자</p>
	<p>< 민간수용소에서의 상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년전부터 “같이 삽시다, 나눠가집시다, 조절합시다”라는 등 쪽지를 붙이고 사라지는 「조절위원회」라는 명의의 강·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87년 남포거주 재일교포 일가 4명 몰살강도사건, '90년 사리원 방화강도사건 등 범행이 점차 흉포화되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귀순자</p>
	<p>< 군인행위규율강화 및 탈영위험이 빈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들이 인근 민가를 습격, 절도·음주행패를 부리는 일이 허다하며 군인상호간에도 언쟁·구타행위가 빈번히 발생·군의 기강과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음. ○ 북한당국은 인민군대 군사규율 강화 지시문을 하달, 군인들의 민가출입을 금지하는 등 통제하고 있으나 군인들은 여자와 접촉, 음주 및 쌀·부식 등 보급품을 유출하기 위해 상등병 이상이 되면 대부분 마음대로 무단이탈, 민가를 출입하는 실정임. ○ 군부대 주변마을 주민들간에는 “지금처럼 군사규율이 없고 문란한 군대가 전쟁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도둑놈의 부대온다, 도끼(낫)감추어라”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통용되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귀순자</p> <p style="text-align: right;">귀순자</p> <p style="text-align: right;">귀순자</p>

區分	內 容	出 處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의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급한 일로 먼길을 가기 위해서는 협동농장 트럭운전사 등과 결탁, 사례비를 주고 비공식적으로 몰래 빌려타고 간다 함. ○ 안내원들은 전번과는 달리 00교포들에게 술·담배 등을 사줄 것을 공공연히 요구, 사회기강이 경제사정 악화로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았음. 	<p>방북자</p> <p>방북자</p>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지식인들은 '80년대말부터 전개중인 『구호나무 발굴운동』에 대하여 모두가 거짓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살아있는 나무에 『구호』를 새기면 나무가 크면서 글씨가 퍼져 『구호』가 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함. 	<p>귀순자</p>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 탄 사람이 지나가면 높은 사람으로 인식, 일하는 척하고, 멀리 사라지면 다시 빈둥대며 노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음. ○ '88년 7월 00이 금요노동을 나갔을 때 농민들은 논에 잡초가 무성하여도 뽑으려고 하지 않고 김을 매는척만 하여 “그렇게 일하면 되겠는가”라고 질책하자 “잘 먹고 잘 사는 000님들이나 열심히 일하십시오”라며 빈정대었음. 	<p>방북자</p> <p>귀순자</p>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매우 침체된 것으로 보였으며, 농민들은 협동농장 경작지보다는 개인터밭의 작물관리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실정임. 또한 당원·비당원을 불문하고 협동농장에 공급된 비료를 빼내어 개인터밭에 시비하는 행위가 만연되어 있었음. 	<p>방북자</p>

區分	內 容	出 處
對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포들이 방북하면 이웃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모두가 남쪽으로 간 사람들의 소식을 알기 위한 것이었고, 쪽지 등을 주면서 소식을 알려달라 부탁함. ○ 과거에는 하기를 꺼려하던 남한실정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1984년 수재물자 인도시 한 국측에서 선물한 전자시계(『Made in Korea』)삭제를 당 간부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함. 	<p>방북자</p> <p>기 타</p>
	南 認 識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요원들은 남한의 ○○○○ 물품인 가스라이터, 모나미볼펜, 대일밴드, 검 등의 질이 좋아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임에는 틀림없다고 믿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한·소 수교와 관련하여 “소련이 남조선에 23억 불에 팔려 갔다”는 비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북한 전역에 전파되자 결과적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는 홍보가 되고 말았음. 		<p>방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교포사회에서는 “남조선에 친척이 있으면 부자, 북조선에 친척이 있으면 거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들은 남한실정을 어느정도 알고 있음. 		<p>방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시장에는 해외동포들이 방북시 휴대 또는 선물한 남한 상품들이 널리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남한의 생활 수준과 상품의 우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함.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대학을 방문, 한 학생과 대화를 했는데 그 학생은 “남쪽이 중화학공업분야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본다. 경제적인 면에서 남쪽이 많이 앞선 분야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기술교류면에서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우리는 남쪽과 협조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함. 		<p>방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주민들은 남조선이 소련보다 잘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남조선을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방직 등 8개 부분의 기둥이 우뚝 선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 		<p>귀순자</p>

區分	內 容	出 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국제○○ 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 들은 외국의 백화점 등지에 진열된 수준높은 남한상품을 목격하고 주로 운동화, T셔츠 등을 구입, 상표를 제거후 사용하며, ○○ 대부분이 싸고 질이 좋다는 평을 하고 있음. ○ '90년 11월 일본 오사카 개최 국제 ○ ○ 대회에 참석한 북한 ○ ○ ○ ○ 들은 “남한 돈이 일본에서 통용되는 것을 보니 남한경제력이 대단한 것 같다”며 동료 ○ ○ 들에게 실상을 전파하여 북한의 ○ ○ ○ ○ 대부분은 남한의 경제 발전상을 사실대로 인식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 남한 자유실상 확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람들은 임수경이가 방북후 남조선으로 돌아간 다음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모가 면회를 가기도 하고 반동가족으로 처벌되지도 않았는 바, 이점만 보아도 남조선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함. <p style="text-align: center;">< 시베리아 벌목공들의 대남인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인부들은 소련TV, 신문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에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상을 잘 알고 있음. 특히 소련의 주요 신문들은 '91년 4월부터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 공업발전 실태 등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소간의 정치발전, 한국의 경제발전 등에 대해 어느정도 확인하게 되었음. 	<p style="text-align: right;">귀순자</p> <p style="text-align: right;">귀순자</p> <p style="text-align: right;">귀순자</p> <p style="text-align: right;">귀순자</p>
<p>蘇聯</p> <p>朝鮮族</p> <p>의</p> <p>北韓觀</p>	<p style="text-align: center;"><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내 조선족은 북한이 정치적 탄압이 심하고, 의식주 생활이 낙후되어 있으며, 김일성 숭배주의가 심해 환멸을 느낀다는 등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북한을 『거지나라』로 생각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귀순자</p>

◇ 海外留學生 認識變化 動向 ◇

區分	內 容	出 處
體 制 및 政 權 批 判	<p>< 북한체제비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8년 1월경 ○○○ ○○대학 졸업반 유학생이 북한의 애인에게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북한에 가서 어떻게 살겠는가”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국가보위부 서신검열에 적발되어 소환되었음. 	귀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 2명이 남한으로 귀순하자 유학생들은 그들이 용감하다면서 “남쪽으로 자주 가야된다. 1인당 100명이 관련된다면 10명만 가면 1,000명이 반정부 세력으로 탄생되기 때문에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는 등의 반응을 보였음. 	귀순자
	<p>< 북한경제정책 비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9년 1월경 모스크바 ○○ 대학교 학생이 기숙사에서 동료유학생·연구생 등과 음주중 김일성의 경제정책을 비난한 사실이 동석했던 학생의 밀고로 대사관에 알려져 즉각 평양에 소환되었음. 	귀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련의 개혁정책에 대해 북한유학생들은 “소련이 잘 살려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것인데 북한은 거지같이 살면서도 남의 흉만 본다” 고 북한당국의 대응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봄. <p>< 북한주변정세에 대한 회의적 반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련 주간지 「새시대」(90년 5월호)에 게재된 6.25평가 내용을 읽은 유학생들은 3일만의 서울 점령, 북한의 국방공업 강화, 미군철수 등을 들어 6.25는 북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임. 	귀순자
	<p>< 김정일의 독재체제에 대한 자질구래한 의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련에 체류하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유학생들은 북한이 부자세습 봉건군주국가이자 인민의 권리와 자유가 없는 폐쇄국가이며, 김정일의 정치가 자질이 부족하고, 북한도 동구처럼 개방하고 김일성·김정일이 정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 등 김부자의 독재체제 및 폐쇄주의에 대해 비판적 반응임.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년 5월경 ○○ 종합대학 연구생 ○○○ (○○)이 동료 연구생 등과 대화시 북한의 정치체제, 김일성 숭배주의, 부자세습체제, 김정일의 지도자 자질 등을 비판하다가 동 사실이 대사관에 밀고되어 북한으로 소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었음. 	귀순자
金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유학생 90% 정도가 북한체제에 무조건 불신하는 경향이 있고, 3-6명씩 소그룹을 형성하여 공개적으로 김부자를 비판하고 있음. 	귀순자
父 子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3월 초경 소련내 급진파인 「민주연맹」에서 고르바초프·차우세스쿠·김일성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포스터를 부착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북한 유학생들은 “고르바초프는 자유와 개혁을 표방, 김일성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인데 같이 취급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고르바초프를 동정하면서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세계인들이 더 혼을 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 	귀순자
動	<p>< 김부자 숭배주의 의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 2월경 모스크바 종합대학 물리학부 5학년 ○○○ (○○)이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대화중 “김부자 숭배주의가 북한발전의 장애다”는 등 북한정치체제 비판사실이 밀고되어, 3개월 후 북한으로 소환되었음. 	귀순자
向	<p>< 김일성 및 김씨 체제에 대한 의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유학생들은 유학 1년간 김일성 뺏지를 착실하게 패용하나 소련인 등 외국인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유학 1년후 부터는 당비서·연구생 앞에서만 패용하다가 2년 경과시 부터는 유학생 거의가 회의참석시에만 패용하는 실정임. 	귀순자

區分	內 容	出 處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나무」발굴에 대해 유학생들은 “당시 조선인민들이 김정일의 탄생까지 알았다는 것이 의심간다”는 등 부정적 인식을 갖고 북한이 사실을 왜곡한다는 반응임.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들은 장차 북한이 일본의 입헌군주제와 같은 성격의 정치체제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는데, 이는 김일성의 일가가 일본천황과 같이 군림은 하되 통치는 수상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음. 	<p>귀순자</p> <p>기 타</p>
<p>自由 · 開放 風潮</p>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1-2학년때는 학업에 열중, 성적이 상위권이나, 3-4학년때부터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통제받은 생활이 될테니 소련에 있을 동안 실컷 즐기자는 풍조가 만연, 성적이 중하위권으로 하락함. ○ 대부분의 북한 유학생들은 유학후 1년간은 북한에서의 조직생활 습성으로 장거리 여행·문란한 사생활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한 학년 정도가 경과하면 통제 없는 생활환경과 상급생 유학생들의 생활태도 영향으로 자유생활을 만끽하려는 풍조가 만연됨. 	<p>귀순자</p> <p>귀순자</p>
<p>對 南 認 識</p>	<p>< [REDAC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의 북한 유학생들은 남한에 대해 선박·자동차·전자공업 등이 선진국 수준이고 개인생활수준이 높으며, 대통령 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대학생·근로자들의 시위가 인정된다는 등 대부분 남한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자유에 대해 긍정적임. ○ 「'89 모스크바영화제」 기간중 한국영화 「아메리카 아메리카」를 관람한 북한 유학생들은 “미제의 식민지라는 남조선에서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한 것을 보면 남조선에 문예창작의 자유가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음. 	<p>귀순자</p> <p>귀순자</p>

區分	內 容	出 處
	<p>< 남한가요 청취 인기 ></p> <p>○ 모스크바에 유학중인 북한대학생의 80%이상이 1-2개 정도의 남한가요 테이프를 복사 소지하고 있으며, 기숙사내에서 상호 목인하에 남한가요를 청취하거나 즐겨 부르고 있음.</p> <p>< 남한주도의 통일 희망 ></p> <p>○ ○ ○ 내 북한 유학생들의 통일관은 전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민족만 손해를 보게 되므로 동·서독처럼 경제가 발전한 남한주도의 협상을 통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p>	<p>귀순자</p> <p>귀순자</p>
<p>對 美 認 識</p>	<p>< 미국은 자유의 평등의 보장된 나라로 인식 ></p> <p>○ 북한 유학생들은 유학전에는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나 유학중 신문·TV 등 매스컴을 통해 미국이 헌법을 준수하는 민주주의 나라, 평등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인식하는 등 호감을 가짐.</p> <p>< 소련·중국인 보편적 적대관계 있음 ></p> <p>○ ○ ○ 유학생들은 북한에서 어려서부터 미국·일본사람은 『나쁜놈』이라고 교육받았으나, ○ ○ 에 와 보니 미국 사람은 신사고 일본사람은 친절하나, 소련·중국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박대한다고 불평함.</p>	<p>귀순자</p> <p>기 타</p>

최근 북한주민 의식변화 동향

1992년 12월 28일 인쇄

199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처 통 일 원

정 보 분 석 실

☎ 720 - 2143

• 통분 92-12-71